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보

2026년 1월 1일 110호



병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과 만복이 함께하시길
준비되지 않은 축산정책, 그 피해는 누구의 몫인가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윤희진 다비육종 회장
우리가 도전한 요세미티 거벽
제1회 상록친선골프대회
상록문학상 수필 최우수 '꽃이 된다는 건'
2025년 2학기 상록문화재단 장학금수여식
2025년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 · 학술상 · 교육상

커버스토리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더 큰 대학

순천향대학교 총장

송병국

Sunjin

축산, 환경을 품다



정부규제 강화	민 원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분뇨정화 / 퇴비부숙도 8대 방역시설	악취 수질 방류	깨끗한 축산 사회적 의무 증대

GREEN 양돈! GREEN 선진!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낙낙한 세상
Sunjin

EASY FARMING, HIGH LIVING 3 Free - Hands Free · Disease Free · Complaint Free
www.SJ.co.kr 이천 (031)637-1181~5 | 서부 (042)718-5200~3 | 영남 (053)857-5135 | 서울 (02)2225-0661

회보 편집위원



발행인, 동창회장
박식순



위원장
이중용

위원



김훈동



손해일



신창근



강규석



윤철희



박영준



편집국장
이혜숙



간사
조민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보

2026년 1월 1일 110호

발행일 2026년 1월 1일
발행인 박식순
발행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75-1동 207호
Tel 02-880-4525, 882-8630
H.P 010-8823-8630
Fax 02-873-8632
E-mail snunong@snu.ac.kr

편집인 이중용
디자인·인쇄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Tel 02-880-5220
정가 5,500원

동창회 홈페이지 QR코드

차례

4 권두언 병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과 만복이 함께하시길 박식순(농교육77) 동창회장
6 칼럼 | 농업·농촌·환경 준비되지 않은 축산정책, 그 피해는 누구의 몫인가 김유용(축산83)
8 커버스토리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더 큰 대학 순천향대학교 총장 송병국(농교육81)
12 상록문학상 수필부문 최우수작 꽃이 된다는 건 방선우(산림환경 19)
17 특집1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2025년 제2학기 장학금수여식
25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삼심(三心)으로 키운 다비, 그리고 도드람, 한국 양돈의 대부 윤희진(축산63) 다비육종 회장
30 특집2 우리가 도전한 요세미티 거벽 서울농대 산악회
34 특집3 제1회 상록친선골프대회
42 모교는 지금 2025년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 학술상, 교육상 / 모교 학장이 동문에게 드리는 글
47 **모교 소식과 교수동정**
50 **동창회 소식과 동문동정, 경조사**
52 **각 학과 동문회 소식**
53 **회비, 찬조금, 기부금 납입내역**

동창회의 발자취(2025.1.1~2025.11.30.)

2025. 1. 1. 동창회보 제107호 발행
1. 8. 2025년 새해인사회(75학번 주관)
1. 15. 상록문화재단 회계 감사
2. 5. 제28회 상록문화재단 이사회
2. 18. 상록문화재단 2학기 장학금 수여식
2. 27. 상록의 날 준비를 위한 90학번 1차 회의
3. 1. 2025년 전기 신입회원 등재
3. 10. 2025년 제1회 동창회보 편집위원회 회의
3. 19. 2025년 제1회 포상위원회 회의
3. 27. 상록의 날 준비를 위한 90학번 2차 회의
4. 10. 2025년 동창회 회계감사
4. 25. 제1차 상임부회장 · 상임이사 회의
4. 25. 상록의 날 준비를 위한 90학번 3차 회의
5. 1. 동창회보 제108호 발행
5. 10. 동창회장 이 · 취임식
5. 10. 2025년 상록의 날
5. 13. 제29회 상록문화재단 이사회
6. 30. 제2차 상임부회장 · 상임이사 회의
8. 26. 상록문화재단 2학기 장학금 수여식
9. 1. 2025년 후기 신입회원 등재
9. 1. 동창회보 109호 발행
10. 1. 2026년 새해인사회 준비를 위한 76학번 1차 회의
10. 30. 제1회 상록 친선 골프대회
11. 10. 제8회 상록문학상 시상식
11. 11. 자문위원 간담회
11. 26. 2026년 새해인사회 준비를 위한 76학번 2차 회의

알리는 말씀

농생대동창회 근조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동문들께 농생대동창회 근조기를 실비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880-4525, 문자 010-8823-86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 회비 통장 계좌번호

농협 301-0036-4788-41 예금주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입금 시 '홍길동 농학 83'식으로 입금 바랍니다.

* 동창회보 책자는 동창회 재정 여건상 회비를 납부하시는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발송해 드리려고 하는바, 많은 협조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 동창회보는 동창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계좌번호

농협 301-0068-1319-91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입금 시(홍길동 농학 83)

* 기부하신 기금은 장학금 지급, 회보 발간사업 등에 쓰입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과 만복이 함께하시길



박식순(농교육77)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장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께!

병오년 새해의 붉은 해가 대지를 밝혔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숨결 속에서도, 이제 흙은 따사로운 봄기운을 내뿜고 또다시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월의 시계추는 쉼없이 움직이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생명을 이어가는 이 자연의 이치가 바로 우리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상록의 정신임을 새삼 느낍니다.

2026년 병오년의 새해가 밝았지만 이와 무관하게 한결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연구하고, 농업과 생명의 가치를 실천하며, 모교의 이름을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동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농업의 본질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지키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명을 다하고자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시대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와 식량, 환경의 문제는 농업생명과학의 본질적 가치와 역할을 더욱 요구하고 있으며 요즘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각 학문과 산업 환경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제 더 이상 농업생명과학만의 독자적 영역만으로는 미래를 선도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해졌습니다. 타 학문 분야와의 융·복합이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해답임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동창회는 이런 급박한 시대적 변화를 맞아 그에 발맞추려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문과 현장을 잇는 다리로서, 모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로 개학 120주년을 맞이하는 모교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는 동창회로, 동문 모두가 화합하는 동창회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전통을 지키며 모범이 되는 동창회로 나아가기 위해 동창회장으로서 한 번 더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의 첫걸음을 내딛는 이 시점에서, 동문 여러분의 삶에도 새 생명의 빛과 같은 희망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가정마다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하고, 여러분의 연구와 일터마다 풍요로운 결실이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장
박식순 드림

2026년 76학번 주관
새해 인사회 알림

▶일시: 2026년 1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반~ 오후 2시
▶장소: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
▶참가 신청: 2026년 1월 2일까지, **우측 QR 신청 또는 문자나 전화**
▶참가비: 인당 ₩30,000
▶입금 계좌: 농협 301-0248-8582-91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 좌석 수가 한정되어 있어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은 참석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 모든 비용이 상승하여 부득이 참가 비용을 받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동창회 임원, 76학번, 모교명예교수는 예외). 제한된 인원 충원시 신청기간 내라도 참가 신청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빠른 접수 바랍니다.
- 문의: 동창회 010-8823-8630, 02-880-4525

오시는 길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과 명예의 전당 헌정자 후보 추천 공지

2026년 '상록인 명예의 전당' 헌정후보자 및 제22회(2026년) '자랑스러운 상록인대상' 후보자 추천

1. 후보자 자격요건
   1)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
   2) 사회 각 부분에서 뛰어난 업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인정을 받고(훈장, 포장, 표창 등)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높이고 인격과 덕망을 겸비한 회원
   3) 학번요건: 자랑스러운 상록인대상 후보는 입학 후 35년이 경과한 회원(91학번까지), 명예의 전당 헌정후보는 입학 후 50년(76학번까지)이 경과한 회원
2. 추천기한: **2026년 2월 20(금)**
3. 추천방법: 동창회 홈페이지 공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http://snuagria.or.kr)
4. 접수처: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75-1동 207호
   서울대 농생대 동창회(이메일 snunong@snu.ac.kr)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 포상위원회

준비되지 않은 축산정책, 그 피해는 누구의 몫인가?



김유용(축산83)
모교 교수

나는 2년 주기로 핀퉁대학교와 대만양돈협회의 초청을 받아 대만을 방문해 양돈 관련 특강을 진행하곤 한다. 그런데 작년 8월 대만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특강 전, 대만의 양돈 담당 공무원과 양돈협회 임원이 찾아와 인사를 하며 "특강에서 동물복지 관련 내용은 가능하면 다루지 않거나, 가볍게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이다. 그들은 "대만 정부와 양돈협회의 최우선 목표는 대만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인 돼지고기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며, 동물복지는 아직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들의 분명한 입장과 국가적 목표의 일관성에 오히려 깊은 인상을 받았다.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실을 돌아보면, 지난 20~3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축산정책을 어떤 목표로 이끌어왔는지를 되돌아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내가 전공한 양돈산업만 보더라도 그 문제점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2025년 현재, 국내 돼지고기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필리핀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돼지고기 가격의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양돈농가들은 높은 폐사율, ASF(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각종 질병과 어려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돈산업은 이제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변모했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유기축산, 악취방지법, 친환경축산, 무항생제 인증제, HACCP, 탄소중립을 위한 저단백·저메탄 사료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스마트농업, ICT·AI 융합농업으로의 전환을 강조하지만, 실제 효과는 불확실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대부분 농가가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현실과 준비 기간, 농가의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 집행이 문제이다.

> "대만 정부와 양돈협회의 최우선 목표는 대만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인 돼지고기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며, 동물복지는 아직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2025년 1월, 정부는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030년 1월 1일부터는 임신돈에게 종부 후 6주까지만 임신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그룹사육을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면 농장당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돼지는 서열이 강한 사회성 동물로, 그룹사육 시 서열 다툼으로 인한 상해·유산·피부 손상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준비 없이 제도가 추진되고 있어,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 특히 임신돈 사육시설의 절반을 철거하고 운동장을 마련해야 하므로 사육두수가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국내 양돈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면 생산량 감소는 불가피하다. 2024년 기준 국내산 돼지고기 생산량은 112만 3천 톤, 수입육은 45만 2천 톤으로 총 157만 5천 톤이 소



"준비 없는 정책,
현장과 괴리된 제도,
그리고 처벌 위주의 접근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차제에 묻고 싶다."

비되었다. 만약 현재 사육 중인 98만 두의 임신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국내 생산량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수입육이 연간 100만 톤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1997년 영국의 양돈자급률은 80% 이상이었지만, 1998년부터 정부가 동물복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모돈 두수가 80만 두에서 25만 두로 급감했다. 그 결과 사료·동물약품·기자재 산업 등 관련 산업이 연쇄적으로 붕괴되었고, 영국은 결국 덴마크·독일·스페인 등으로부터 일반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다. 당시 소비자 조사에서는 "비싸도 동물복지 돼지고기를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가격이 비싸지자 외면했다. 영국 정부의 과도한 정책 추진이 자국 산업을 몰락시킨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헤밍웨이의 소설 제목처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For Whom the Bell Tolls)"라는 물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영국 정부의 과도한 정책 추진이
자국 산업을 몰락시킨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농림부와 환경부의 각종 규제정책은 여전히 양돈농가의 생산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EU보다 50% 이상 높은 생산비를 낮추지 못한다면, 국내 축산물 가격 억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부에서는 "외국산 축산물을 수입해 소비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매우 단견적이다. 양돈산업이 존재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유지되고, 지방 소멸을 늦추며, 농촌의 고령층에게 일정한 후원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정부는 반드시 축산농가의 부담과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일단 시행하고 문제점은 나중에 보완한다'는 식의 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또한 산란계 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수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하는 동물복지 기준을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려다, 준비 부족으로 인해 2년 연기해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만약 이 기준이 강행된다면 국내 계란 생산량은 약 30%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산란계 농장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생산량 증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우리와 달리 덴마크는 임신틀 사용을 종부 후 4주까지만 허용하는 법을 2014년에서 2035년까지 유예했다. 생산성이 우리나라보다 40% 이상 높은 덴마크조차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2030년부터 강제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준비 없는 정책, 현장과 괴리된 제도, 그리고 처벌 위주의 접근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차제에 묻고 싶다.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더 큰 대학

집무실에서

순천향대학교 총장

송병국

(농교육 81)

총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순천향을 깊이 이해하는 인물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먼저 축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순천향을 깊이 이해하는 인물'로 평가해주시니, 감사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에서 교수로서 여러 보직을 거치며 제 삶의 대부분을 함께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길었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인 '인간사랑' 정신이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실현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온몸으로 겪어온 셈입니다. 학생들의 고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교수님들의 연구에 대한 열정을 지켜보았으며, 지역사회가 우리 대학에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항상 마음속에 새겨왔습니다. 저의 '깊은 이해'가 모든 순천향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경청하여 순천향대학교가 학생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 성공과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더 큰 순천향'이라는 슬로건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대학이 나아갈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학생 성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존의 교육 방식을 넘어 과감한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입학부터 졸업 후까지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학생 성공 지원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구축할 것이며 혁신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혁신'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여 대학이 가진 연구 역량과 인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융복합 연구체제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대학의 발전이 곧 지역 발전으로, 지역의 성장이 다시 대학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는 상생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더 큰 순천향'을 향한 여정으로 학생, 교직원, 동문,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잠재력과 의견을 존중하면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성공하는 'Inclusive Success'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상징



총장 취임식

'오픈 루프 유니버시티'가 무엇인지요?

'오픈 루프 유니버시티'는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대학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미래지향적 모델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우리 대학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교육 혁신 방향입니다. 과거에는 4년의 대학 교육을 마치면 모든 것이 끝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구조였지만 이제는 평생 학습이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오픈 루프 유니버시티'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학의 문을 졸업생과 지역사회 전문가들에게 활짝 열어두는 개념입니다. 핵심은 '평생에 걸친 다회적 입학'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AI기술이 필요해지면 다시 돌아와 관련 과정을 이수하고, 또 몇 년 뒤 리더십 역량이 필요해지면 다시 찾아와 교육받는 식입니다. 이렇게 대학을 평생에 걸쳐 자신의 경력과 지식을 업그레이드하는 '학문적 허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픈 루프 유니버시티는, 한 번의 입학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닌 평생의 관계를 통해 학습자와 함께 성장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지속해 양성하겠다는 우리 대학의 의지이자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순천향대학교가 바이오 분야, 특히 임상의학연구소와 연계된 AI 의료 융합 특성화 전략을 통해 지역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며, 이러한 전략이 충남 지역의 산업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지도 궁금합니다.

2025년 4월 제10대 총장 취임과 함께 AI 의료 융합 특성화를 공식 전략으로 선포했습니다. 충남은 총생산 전국 3위, 1인당 GRDP 2위로 산업 중심지이며, AI 의료 융합 분야 사업 전환과 기술 개발 수요가 높습니다. 따라서 충남 북부(아산·천안·내포)를 잇는 AI 의료 융합 트라이앵글 캠퍼스를 구축해 인력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의 특성화 대학을 지향합니다. 정부·충남도 정책과 연계해 교육·연구–실습·실증–상용화 가치사슬 모델을 제시하며, 인력 정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 오픈 루프 유니버시티는
> 평생의 관계를 통해 학습자와
> 함께 성장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 인재를 지속해 양성하겠다는
> 우리 대학의 의지이자 비전

구체적으로, '아산의 교육·연구 캠퍼스'는 지역 인재 발굴·양성 허브로, AI의료융합혁신관 신축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아산시·충남 TP와 신기술 개발과 유망기업 발굴, 전문인력 양성을 협력하며 '천안의 실습·실증 캠퍼스'는 병원·연구원 기반으로 세 센터(임상시험트레이닝, 의료융합임상시험, AI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실증 지원과 기업 참여를 촉진하며 스타트업 교육, 기기 개발·사업화, 데이터 이용 권한 제공으로 연구·경제 활성화를 돕습니다. '내포의 상용화 캠퍼스'는 바이오 특화 구역과 연계해 42개 기업과 공동연구·기술이전·인력양성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AI의료융합을 산업 확산과 일자리로 연결합니다.

결론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 Top 1' 비전 실현을 위해 지역 협업을 강화해 충남을 'AI 의료융합 혁신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산업 경제와 상생을 이끌겠습니다.



대학 시절



제자들과 함께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나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있을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대학 시절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농촌사회교육전공에서 만난 故 김성수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학생들과 가깝게 지내고, 그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많은 시간을 함께하려 노력한 것은 모두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기억은 명절을 앞두고 인사를 드리러 교수님 연구실을 찾으면 그때마다 교수님은 제 손에 5,000원을 꼭 쥐여주시며 "집에 가는데 고기 한 근은 사 가야지."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고사했지만, 교수님은 끝내 웃으며 그 돈을 쥐여주셨습니다. 그 따뜻함이 저를 얼마나 감동시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는지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또 교수님은 제가 대학 3학년 때 '전국대학생 논문발표대회'에 출전하도록 강력히 권유하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저는 장려상을 수상할 수 있었고, 다음 해인 4학년 때는 최우수상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학원에 진학할 용기를 주었고, 제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따뜻함, 믿음, 그리고 사람을 키우려는 마음은 제 삶과 교육 철학에 깊이 새겨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과 학습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려면 정치·경제 구조의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변화 없이 교육 체계만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 혹은 교육과 관련한 정치·행정가들에게 미래의 한국을 위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정치로부터 중립되어야 한다는 말이 종종 들립니다. 이론적으로는 교육 과정에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주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이 정치적 결정과 행정적 조치에 좌우됩니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과 학습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려면 정치·경제 구조의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변화 없이 교육 체계만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이 정치·경제적 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은 대학의 현실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많은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재정이 악화되고 교육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졸자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대학 교육의 효과성과 사회적 가치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은 대학 교육의 미래에 직접적인 제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문제는 교육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정책 결정자들이 함께 협력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정책을 조정하고 국가 차원의 방향을 제



가족과 함께

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정부에서 교육부총리 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 한쪽에 미안함이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이 위치한 곳과 가족이 거주하는 곳이 달라 주말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 대학 부임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도 아산으로 옮기면서 사실상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성장하는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하지 못했고, 그 빈자리를 아내가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희생을 떠올리면 미안함과 고마움이 함께 밀려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되기 위해 제 좌우명인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을 마음에 새기며 언제나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 좌우명은 제게 힘이 되어 주었고,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함께 나누며 용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매우 평범하지만 '삶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송병국 동문은 부친 고 송창식과 모친 신태수 슬하에 3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부인 이선우와 결혼하여 민규, 지원 1남 1녀를 두었다.

약력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 순천향대학교 대외협력실장
순천향대학교 평생교육원장 |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관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 |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회장
한국진로교육학회 회장 | 순천향대학교 교무처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주요 수상

아산 시민 대상 | 교육부총리 표창 | 홍조근정 훈장

꽃이 된다는 건





농림생물자원학부
박사과정 방선우
(산림환경학전공 19학번)

일 년에 두 번 풍물패의 가장 큰 공연, 판굿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지하 2층 동아리방은 꽃들과 꽃을 접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널브러진 장구와 소고채를 대충 치우고 사람들 틈에 끼어 앉아 색색의 꽃들을 접기 시작한다. 좁은 방은 손끝으로 얇은 꽃종이를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가위질 소리,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덮는 너털웃음들로 가득 찬다. 투박하게 펼친 꽃들을 고깔에 고정한 후 색동 띠를 두르면 화려한 꽃모자가 완성된다. 금세 다 만든 선배들은 꽃모자를 머리에 얹고 제자리 뛰기를 하며 꽃이 잘 고정되었는지 확인한 후 모자 안쪽에 이름을 적고 있다. 함께 꽃모자를 접는 것도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말에 첫 판굿을 앞둔 우리도 선배들을 따라 열심히 접는다. 하지만 크기도 제각각에 붉은 종이가 여기저기 물을 들여 색깔도 얼룩덜룩. 새내기의 꽃모자는 누가 봐도 처음 피워본 꽃들 같다.

엉성한 꽃모자와, 어색하게 쥔 소고와 소고채, 선배들이 묶어줘 유일하게 서툴지 않은 삼색 끈을 맨 채 며칠 후 문화관 앞에서 생애 첫 판굿을 뛰게 되었다. 악기 치는 선배들이 원진을 이끄는 동안 주름진 꽃처럼 겹겹이 선 우리는 가락을 타고 춤을 췄다. 사실 가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없지만 눈치껏 첫 박만 틀리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사뭇 귀엽다. 봄바람에 살랑이는 삼색끈, 오금질에 흔들거리는 꽃모자, 웃음과 힘듦이 저항 없이 드러나는 뚝딱뚝딱 너름새. 하늘이 어두워질수록 우리의 춤선은 닮아갔고, 굿의 말머리가 다가오자 꽃모자는 눈에도 띄지 않을 만큼 서로의 눈 속 황홀에 집중하고 있었다.

"우리, 하늘에서 보면 꽃이나 다름없겠다!"
그렇게 우린 몇 시간 동안 치복이 땀으로 다 젖도록 춤을 췄다.

그날 밤 판굿 뒤풀이. 상모를 기막히게 돌리던 선배의 건배사는, 어른이 되어 처음 느낀 이날의 소속감을 한마디 약속으로 정리해 주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을 구체적으로 기약할 새도 없이 판굿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났다. 치복을 입든 입지 않든, 악기를 치든 치지 않든. 버들골, 동아리방, 술집, 심지어 비대면으로도 우린 하루가 멀게 만났다. 한번 꽃을 이루어 본 사람들의 눈을 다시 볼 때면 늘 처음 접은 꽃의 서툰 잔향이 점차 더 진하게 풍기는 것 같았다. 투명한 소리를 내며 둥글게 부딪히던 술잔도, 둘러앉아 꽃모자를 접는 시간도, 여럿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는 모습도, 하늘에서 보면 모두 꽃과 다름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 화려한 꽃모자를 쓰지 않아도 삼색끈을 단단히 매지 않아도 우린 만나면 꽃처럼 웃

었다. 한때 난 '우리'가 된다는 것을 '꽃이 된다는 것'으로 정의하곤 했다.

만남과 다음에 또 만날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반복되는 동안 어색하게도 여러 번의 졸업을 함께했다. 특히 쉼 없이 박사과정까지 진학한 나는 참 오랫동안 많은 선후배의 졸업을 마주했다. 우리는 매 학기 졸업식 날 오후 3시 자하연 앞, 약속처럼 모였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보라색 학위복을 입은 주인공들은 우리답지 않은 멀끔한 모습으로 두 손엔 우릴 꼭 닮은 꽃을 한 다발씩 들고 있었다. 한참 위 학번 선배들의 졸업엔,

"오~~ 척척학사 멋지다!"
"선배 가지 마요. 그냥 대학원 오면 안 돼요?"

축하 반 농담 반으로 실없이 웃다가,

"다음 학기엔 누가 졸업하지? 그때 또 보자! 농대 가는 사람? 같이 가!"

라는 말로 당연한 다음을 기약하곤 했는데. 어느새 가까운 학번 친구들이 "매번 졸업 사진 찍으러만 왔는데 내가 졸업하는 날도 오네."라며 멋쩍게 웃었을 때, 그제야 '다음에 또 만나자'라는 말의 무게가 실감이 났다. 적어도 다음 졸업식 때 또 보겠지, 했던 말들은 복에 겨운 감정이었구나. 아쉬움은 꽃내음처럼 흩어지는 듯했으나 이상한 기회로 다시 소고를 쥐면 아직 꽃이 지기엔 이르다는 안도감에 내심 기뻐했다. 그러다 또다시 누군가가 떠나면 좀처럼 익숙해지기 어려운 감정에 한때 넋을 놓아야 했다. 그러나 그 아쉬움마저 충분히 곱씹기엔 버겁게 바쁜 하루들을 살아가고 있었다. 아슬아슬한 잔향의 줄타기 속에서 가끔 난 정말로 이 꽃이 지는 순간을 마주하면 어떻게 이 긴 날을 그리게 될지 생각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3년 전 농생대 풍물패의 홈커밍 행사에서 선배님들이 부르시는 '농부가'를 녹음한 파일을 발견했다. 아마도 세대가 바뀌며 농부가를 제대로 배운 적 없는 기수들의 참고 자료로 쓰려고 녹음해 두었나 보다. 나보다 30학번이 훌쩍 넘는 선배님들의 노랫소리를 듣다 보니 어렴풋이 그날의 대화를 기억하게 되었다.

"얘는 궁이고, 얘는 쫑이고, 얘는 골이고, 얘는 씨였어."
"골은 왜 골이고 씨는 왜 씨세요?"
"모르겠네, 근데 그냥 골은 골이고 씨는 씨야. 그냥 그렇게 불렀어."

농생대가 수원에서 서울로 옮겨오며 낯설어진 공간에서도 선배님들의 가락은 여전히 가락이고, 농부가는 여전히 농부가였으며, 우리는 여전히 우리였다. 설명할 수 없는 농익음이 가락 사이 여백을 채웠을 뿐이었다. 문득 계절이 돌아오면 꽃은 또 핀다는 사실이 나를 스쳤다.

우린 한날한시에 함께 꽃을 피웠지만 삶의 계절은 이미 다르게 걸어가고 있다. 누군가는 졸업과 함께 학교를 떠났고, 누군가는 곧 떠날 예정이며, 누군가는 학교에 남아 공부를 이어가길 택했다. 앞으로도 저마다 삶의 주기와 변곡점을 오롯이 견뎌야 하겠지만 평행하지 않은 우린 언젠가 같은 계절에서 마주칠 것이다. 그때 우리들의 개화를 떠올린다면 비로소 판굿 뒤풀이에서 외쳤던 건배사를, 졸업식 때 건네었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만 같다. 마치 궁과 쫑과 골과 씨의 농부가처럼 말이다.

다시, 줄곧 야근을 할 때면 여전히 후배들의 가락이 지하 2층에서 1층 연구실까지 울려온다. 듣다 보면 어느새 무르익은 꽃의 잔향처럼 은은한 약속이 내 마음에 울리는 것만 같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수필 최우수작에 대한 심사평



김훈동(농학63)
심사위원장
한국예총 자문위원,
시인, 수필가

분량에서 너무 길지 않고 진솔한 삶의 깊이와 위트, 유모가 곁들여진 한 편의 수필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학이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도 수필 재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체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서술하기보다는 언어를 어떻게 윤색하느냐에 따라 의미와 깊이가 달라진다. 시와 마찬가지로 수필 역시 블라인드 심사에서 방선우의 「꽃이 된다는 건」을 최우수작으로 뽑았다. 언어의 구사에서부터 문장의 흐름, 주제의 긴밀한 구성에 이르기까지 뛰어났다. "새내기의 꽃모자는 누가 봐도 처음 피워본 꽃들 같다. (중략) 화려한 꽃모자를 쓰지 않아도 삼색끈을 단단히 매지 않아도 우린 만나면 꽃처럼 웃었다. (중략) 그냥 골은 골이고 씨는 씨야, 그냥 그렇게 불렀어 (중략) 우린 한날한시에 함께 꽃을 피웠지만 삶의 계절은 이미 다르게 걸어가고 있다." 이 수필의 백미(白眉)는 "한때 난 '우리'가 된다는 것을 '꽃이 된다는 것'으로 정의하곤 했다."라는 문구다. 수필은 체험의 문학이다. 풍물패 동아리 선후배 속에 필자의 생각이나 감정이 생동감을 일으켜 가치 있는 삶으로 환원시킨 돋보인 작품이다. 다른 응모작들 대부분이 현실적 관심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풀어놓았다. 다만 수필은 단순한 신변잡기가 아니다. 수필 고유의 미덕과 강점을 살려 감동의 글을 써야 한다.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느끼는 울림이 있는 글이 좋은 수필이다. 미처 깨닫지 못한 삶의 의미를 일깨워 줘야 한다. 더 깊은 심상의 세계로 파 들어가는 독창적인 글이 더 좋다.



윤희연(조경98)
심사위원
모교 학생부학장

풍물패와 농대 학생으로서, 오랜 기간 학교에 머무르며 계속해서 맞이하게 되는 만남과 이별을 솔직한 문체로 담담하게 서술하여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글 속에 자연스럽게 글의 소재 '나, 너, 우리'가 묻어나도록 하는 구성미가 돋보인 작품으로, 꽃이라는 독창적인 화제의 선택과 독자들에 어필하는 공감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이다.



수필 최우수 수상자 소감



농림생물자원학부
박사과정 방선우
(산림환경학전공 19학번)

안녕하세요. 저는 산림 환경학 전공 19학번 졸업생이자 현재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방선우입니다.

먼저 부족한 글에도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회를 준비해 주신 학장님과 동창회장님,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의 글 「꽃이 된다는 건」은 농생대 풍물패 '두레'에서 새내기 때부터 오랜 기간 활동하며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진귀한 일인지를 알게 된 저의 시간을 담은 글입니다. 두레에서 활동했던 시간은 올곧게 지키고 싶은 저의 가치관을 정립해 준 계기였기에 이 시간을 잘 기억하고 싶었는데 상록문학상이 한 편의 글로 매듭지을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소중한 것들을 배우고 가꿀 수 있도록 동아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셨던 두레 선배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이틀 전에 두레 홈커밍이 있었는데 선배님들께 배운 교훈들이 오랫동안 변치 않으리라는 확신을 다시 한 번 얻을 수 있게 된 계기였습니다. 오늘 받은 상은 글을 잘 써서 받은 상이라기보다 대학생활 동안 소중한 것을 배웠거나 칭찬해 주신 의미로 감사히 받고 앞으로도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6년 제9회 상록문학상 공모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동창회는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문과 재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9회 상록문학상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다 음 -

1. 공모내용: 창작 시, 창작 수필(분량 A4지 12pt 2페이지 이상 5페이지 이하)
   ※ 작품 수 제한 없음
2. 참가 대상: 농업생명과학대학 및 대학원 동문과 재학생, 교직원
   (단, 기존 1~8회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는 제외)
3. 작품 소재: 나에게 소중한 것
4. 출품 기한: 10월 12일
   (※작품 제출 시 성명, 소속, 휴대폰 연락처 기재 必)
5. 작품제출: snunong7@naver.com
   (메일 제목을 "상록문학상 공모-홍길동"으로 명시 요망)



제8회 상록문학상 시상식 결과



앞줄 왼쪽부터
이중용 편집위원장, 김진모 수석부회장, 박식순 동창회장, 김훈동 심사위원장, 김현석 교무부학장, 뒷줄 동창회 이혜숙 총무이사와 수상자들

상록 제8회 상록문학상 수상작

심사위원장: 김훈동(농학63, 한국예총 자문위원, 시인, 수필가)
심사위원: 윤희연(조경98, 모교 학생부학장)

구분	시		수필	
	수상자	작품명	수상자	작품명
최우수상	윤정로 (식품공학73)	흙에 대한 감사	방선우 (산림환경, 박사과정)	꽃이 된다는 것
우수상	권소은 (산업인력개발학박사과정25)	빗물 속의 살구	차영광 (산림환경23)	푸르름의 끝에서
	최세훈 (바이오소재21)	순환열차	하신희 (산림환경21)	내가 사랑하는, 네가 모인, 우리의 숲
가작	김광용 (식물생산과학부02)	도자기 굽는 밤	김누리 (식품생명20)	다섯 걸음의 오늘
	이건호 (식품동물생명공학부25)	비의 초상	지연우 (농경제21)	우리 예찬
	윤신후 (지역시스템23)	너와 나	변윤미 (산업인력25)	나는 소유하고 싶다. 여유, 자유, 향유를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2025년 제2학기 장학금 수여식



• 일시: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소: 서울대학교 75-1동 203호 대강의실

장학금 수여 대상 및 인원

	인원(명)	금액(원)
1. 학부생 장학금	24	68,386,000
2. 대학원생 장학금	1	2,500,000
3. 모수미 장학금	1	1,500,000
4. 응용생명화학 동문회 장학금	3	3,000,000
5. 사랑인재장학금	7	11,000,000
6. 학업장려금	12	7,700,000
	48	**94,086,000**

16년째 이어지는 상록문화재단의 장학금은
농생대 동문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에서 나왔다.

2025년 8월 26일 오전 11시 서울대학교 75-1동 203호 강의실에서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2025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모교를 대표하여 강병철 농생대 학장과 박영준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석하였으며 심상우 전 농촌진흥원장과 류관희 명예교수를 비롯한 장학금 후원자들과 장학생, 학부모, 학교담당자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하여 장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하였다.

이날 박식순 이사장은 16년째 이어지는 상록문화재단의 장학금은 농생대 동문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에서 나왔다며 소중한 마음에서 주어지는 장학금이

소중한 마음에서 주어지는 장학금이니만큼
학생들이 앞으로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며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니만큼 학생들이 앞으로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며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강병철 학장은 축사에서 박식순 이사장과 기부자 선배들에게 모교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특히 박식순 이사장이 이번에 기탁한 장학금으로 2024년 신설된 스마트시스템과학과의 발전을 위해 해당 학과 학생에게만 지급되는 특별장학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상록문화재단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장학금 기부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장학증서를 직접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격려하였다. 기부자들을 대표하여 이순형 재단이사는 학생들에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며, 책을 많이 읽어 지성을 겸비한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기부자의 격려사에 대한 답사로, 학생 대표 조준영은 장학금 수여자로 확정된 순간 '상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고 한다. 그는 '사철 푸른 상록은 현재 대한민국의 기후에는 자라기 어렵지만, 온실에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상록장학금은 선배들이 주시는 온실과도 같은 소중한 장학금'임을 마음에 새기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의 장학금수여식은 단순 장학금 수여식이 아니라 기부자 선배와 후배 장학생 간의 소중한 마음이 전달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총 48명의 학생에게 9,408만 6,000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농생대동창회와 상록문화재단이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동창회장
박식순(농교77)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이사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농생대동창회장이자 상록문화재단 이사장인 박식순입니다.

먼저 이번 2025년 2학기 상록문화재단의 장학생으로 선정되신 학생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장학금 수여식을 빛내주기 위해 바쁘신 일정 속에도 참석하신 모교의 강병철 학장님, 박영준 기획전략본부장님, 명인종(조경73) 재단 감사님 그리고 장학금을 맡겨 주신 심상우(축산57) 선배님, 박숙자(농가정62) 선배님, 류관희(농공63) 명예교수님, 김상석(농생68) 선배님, 이순형(농공70) 선배님, 윤석용(농학74) 선배님, 신창근(농생75) 선배님, 김인태(임산77) 대표님, 임영오(농교78) 대표님, 윤정원(농화학85) 응용생명화학동문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벌써 10년째 사랑인재 장학금을 후원하고 계시는 경동제약 류덕희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주신 장학생 여러분과 동반하신 선생님, 가족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생대동창회가 운영하는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은 동문들의 기부금으로 연간 2회에 걸쳐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6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끊이지 않고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농생대 선후배님들께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저희 세대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공부하고 싶어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많은 이들이 꿈을 접고 산업전선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은 학자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

겁니다. 그 마음에서 주어지는 장학금이니만큼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앞으로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농생대 동창회와 상록문화재단이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기를 바라며 상록문화재단의 책임자로서 앞으로도 모교와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장학금을 기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상록문화재단 장학생들에게는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기부자들이 전하는 간곡한 축원의 마음을
함께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교 학장
강병철(원예86)

모교 학장 축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월 말부터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으로 취임한 원예생명공학 전공 강병철 교수입니다. 올해로 16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대학교 상록문화재단은 고 한인규 교수님의 숭고한 제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농생대 전 학장님이자 7대 농생대 총동창회장님이셨던 한인규 교수님의 뜻을 이어받아, 2009년부터 농생대 동창회 기금과 7, 8, 9대 동창회장님들의 출연으로 시작된 상록문화재단은 지난 16년간 매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꾸준히 지급해 왔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귀한 장학금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기부자 동문 선후배님들의 모교와 후배들을 향한 각별한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과학 기반의 신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5년 신설된 스마트시스템과학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장학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스마트시스템과학과의 발전을 위해 직접 큰마음을 써주신 박식순 동창회장님께 농생대 학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식순 회장님의 특별한 기부 외에도, 이 자리에서 일일이 호명하긴 어렵지만 오랜 시간 꾸준히 장학금을 기부해주신 류관희 명예교수님을 비롯해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기부자 동문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부가 단순히 넘치는 것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에게도 부족하고 필요하지만, 더욱 절실한 누군가를 위해 나의 필요를 기꺼이 양보하는 것이 바로 기부입니다. 그렇기에 기부는 진정으로 마음이 준비되어야만 가능한, 정말 어렵고도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는 학생 여러분은 기부자님들의 이러한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단지 '장학금 얼마를 받는다'는 산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장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기부자들이 전하는 간곡한 축원의 마음을 함께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소중한 마음을 잊지 말고 앞으로 학업에 더욱 매진하여, 훗날 여러분이 받은 그 따뜻한 마음을 다시 사회에 아름답게 되돌려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처럼 축원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상록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축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부자 대표
이순형(농공70)

기부자 대표 격려사

학생들 위주로 몇 마디만 당부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사람'입니다. 어떤 시간이냐 하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겐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중·고등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 방문한 서울대학교에 꼭 입학하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면 가장 좋은 것은 성실성과 삶을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 졸업장 하나로 인정이 돼요. 그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것만 해도 인생 살기가 얼마나 쉬워요. 시간을 아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늘 좋은 사람과 교류하고, 좋은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또한,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독서'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시대라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는데, 그러면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무섭게 독서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서울대학교 추천 인문 고전 50권'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면 최소 30권은 읽고 졸업하세요. 자기 전에 30분씩 꼭 독서를 하고 잠자리에 드세요. 그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키우세요. 머리에 맞대는 책이 늘 있어야 합니다.

졸업 후 사업가가 되겠다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래야 장학금도 기부할 수 있고, 또 가족도 돌볼 수 있으므로 돈을 많이 버십시오. 마지막으로, 운동을 꾸준히 해서 평생의 취미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장학생 여러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쉽지 않은 기회를 얻은 만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마음 깊이 느끼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상록문화재단은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온실 역할을 해준다고 느꼈습니다.



장학생 대표
조준영(원예20)

장학생 대표 감사의 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식물생명과학부 원예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 조준영입니다. 정말 영광스럽게도 제가 상록문화재단 장학생을 대표해서 선배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록문화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됐다고 했을 때 '선배님들께서 생각하는 상록은 무엇인가? 저에게 바라는 상록은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상록은 '사시사철 푸르다'라는 뜻인데, 대한민국에서 사철 푸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영상으로는 40도까지 올라가고 영하로 또 20도까지 내려가는데, 이 간극에서 버틴 식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온실 속 화초에 가까운데, 이 온도를 어떻게 겪어야 하나.'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에서 사시사철 푸른 곳이 바로 '온실'입니다.

'선배님들의 상록은 우리에게 온실이 되어 주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실의 역할을 해주시려나 보다. 이것이 상록문화재단인 거구나!'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해 본 상록의 의미인데요. 선배님들께서 마음에 품으신 의미는 훨씬 더 깊고 방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이제 다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선배님들의 뒤를 열심히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상록문화재단 관계자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선배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오장학금, 김상석, 윤혜정장학금



윤석용장학금



심상우장학금, 이범호장학금



변상지, 김홍진, Key클럽 장학금



류관희장학금, 주원준장학금



고상운장학금



박식순장학금



박숙자장학금, 이범권장학금



응용생명화학동문회장학금



모수미장학금



사랑인재장학금



광교동문회장학금



이순형 학업장려금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2025년 2학기 장학생 명단

❖ 학부생 장학금

김상석장학금



조준영
원예생명공학

윤혜정장학금



도영길
작물생명과학

임영오장학금



신형석
산업인력개발학



이재원
산업인력개발학

윤석용장학금



백승주
환경재료과학

(재)녹색부농장학금



김동현
산림환경학

심상우장학금



정세화
동물생명공학

이범호장학금



이나라
식품생명공학

변상지장학금



박민성
응용생명화학

김홍진장학금



김민찬
응용생물학

KEY장학금



최정수
응용생물학

류관희장학금



조혜빈
바이오시스템공학

주원준장학금



박준
바이오소재공학

김철순장학금



유종욱
조경학

고상운장학금



조민혁
지역시스템공학

박숙자장학금



구연우
농업·자원경제학

이범권장학금



이돈빈
지역정보학

박식순장학금



권도훈
스마트시스템과학

박식순장학금



김인환
스마트시스템과학



김희연
스마트시스템과학



나혜민
스마트시스템과학



이민섭
스마트시스템과학



임강한
스마트시스템과학



정유신
스마트시스템과학

❖ 대학원 장학금 외

신창근장학금



오승현
식물미생물학(원)

모수미장학금



Moshiro
산림환경학(원)

응용생명화학동문회장학금



이수빈
응용생명화학



김태언
응용생명화학



김규리
응용생명화학

사랑인재장학금



이의진
지역정보학

사랑인재장학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정기부금사업, 기부자: 경동제약(주))



이정은
산업인력개발학



이승은
식품생명공학



권준우
농경제사회학부



강범준
응용생물학



김정후
환경재료과학



박천성
조경학

이순형장학금



이준석
식품생명공학



홍홍일
조경학



이예린
식품생명공학



조재영
과천중학교 3학년



이채린
과천여자고등학교 3학년



정가은
천일초등학교 6학년

이순형장학금



김태경
천일중학교 1학년



김한별
둔촌고등학교 3학년



최지민
부흥고등학교 1학년

광교동문회장학금



김성영
수원농생명과학고 2학년



이경우
수원농생명과학고 2학년



이도형
수원농생명과학고 2학년

♣ 후배들의 장학금(생활비) 후원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입금 계좌 **농협 301-0068-1319-91**

(예금주 재단법인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입금시 "**홍길동 농학00**"라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심(三心)으로 키운 다비, 그리고 도드람, 한국 양돈의 대부

윤희진(축산63) 다비육종 회장

윤희진 다비육종 회장은 우리나라 양돈업계의 대부라 불러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다. 모교 축산학과를 졸업 후 '삼성목장'의 꿈을 가지고 삼성그룹에 입사한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용인 자연농원 양돈부에서 돼지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초창기를 지나 자리를 옮긴 (주)선진에서의 10여 년간 축산 분야 계열화의 바탕을 마련하고 불혹의 나이를 앞둔 1983년 독립하여 (주)다비육종을 세워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선진 종돈 기술과 종돈을 도입하여 한국형 종돈으로 개량하여 양돈농가에 보급하고, 아울러 도드람양돈조합을 결성하여 공동 사료 이용, 종돈 통일, 사육–가공–유통–수출까지의 축산계열화를 이룩하였다. 일본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방역에도 민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만들어 활동하였고, UR의 파고도 냉장육 소비로의 발상 전환을 통해 수입육을 이겨냈으며, 지속적인 양돈 발전을 위해 인재 양성 교육, 해외연수, 유학 지원은 물론 북한 종돈 지원, 베트남 양돈사업, 종돈 수출과 기술 보급, 양돈잡지 발행에 이르기까지 저개발국 지원, 다비컨 세미나 정기 개최, 국제축산박람회 추진위원장 활동, 통일장학회 장학사업 등으로 사회 · 문화 · 교육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브라보 양돈 인생'의 주인공 윤희진(축산63) 다비육종 회장을 호암 교수회관에서 만나 뵙게 되었다. 타이틀의 '삼심'은 '다비종돈'의 사훈으로 양심(良心), 열심(熱心), 협심(協心)을 뜻한다.

이상적인 양돈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양돈 국가를 꼽자면 단연 덴마크를 들 수 있는데 이 나라는 EU의 독과점 규제를 피하려고 형식적으로는 두 개의 협동조합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양돈 조합(Danish Crown)이 단일 종돈(Denbred)만을 사육 ·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예방이 용이하고, 사육 관리 효율성이 커서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단일 조합 체계를 갖추기까지 덴마크 역시 약 60년간의 조합 통합과 구조 조정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양돈농가가 약 3,500개뿐인데도 전국에 백 개가 넘는 지역축협, 농협중앙회, 7개의 양돈조합이



故 이병철 회장이 주도한 삼성 용인 자연농원 양돈 단지



2023년 가업 승계한 윤성규 대표이사와

각기 경영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나라의 양돈 조합들도 통합과 개편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며, 머지 않아 우리 역시 덴마크식 모델에 가까운 체계로 발전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양돈 전문인으로서 정부나 양돈업계에 양돈의 미래를 위한 조언을 하신다면?

먼저 정부 역할 측면에서 보면, 경직된 양돈 관련 법규와 규제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돈농가의 신규 진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재건이나 개량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신규 진입이 차단되어 기존 농가 입장에서는 경쟁이 완화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시설 개선이나 추가 투자가 어렵다는 점에서 수익성과 효율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와 비교하면 양돈 사육 두수는 약 10배 증가했지만, 양돈농가 수는 전체의 0.5%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반면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연간 2.8kg에서 30.6kg으로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 기반은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구 소멸지역만이라도 양돈농가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여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 관(官)·민(民) 간의 소통이 어려워진 점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현장의 관계자들이 자주 만나 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축산 관련 공무원의 잦은 보직 이동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점도 업계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의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돈업계의 자구 노력 역시 절실합니다. 정부 정책의 개선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업계 스스로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양돈농가는 돼지 한 마리당 1,100원의 한돈자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금 53억 원을 포함해 연간 총 310억 원의 한돈자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소비 촉진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는 등,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자율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방역의 경우에도 정부의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농가 스스로 철저한 사전 방역과 질병 유입 차단



영국 최대의 J.S.R.과 종돈기술제휴



도드람 양돈조합 정식 출범



북한에 종돈 지원









❶ 동탑산업훈장 수훈
❷ 국제축산박람회 개막식
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❹ 베트남의 다비-CJ남부농장

에 힘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단일 종돈 체계를 통해 질병 예방과 관리가 쉽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에서 종돈을 수입하므로 해외 질병 유입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구조적 문제는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리 다비육종은 수의과대학과 협력하여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유전자를 제거한 새로운 종돈(Genome Edited Pig, 유전자 편집 돼지)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아직 마지막 검증 단계에 있어 공개는 어렵지만, 예방 중심의 종돈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돈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향후 자동화·무인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첨단 시설 도입 역시 현행 규제로 인해 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신규 시설과 자동화 설비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미래형 양돈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의 제도적 유연성과 업계의 자율적 노력이 병행될 때, 우리 양돈 산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통일농수산사업단 사업 일환으로 우리 종돈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금강산-개성

2011년부터 개인적으로 탈북민 후원을 시작했고,
2014년부터는 일가재단을 통해
'통일 장학위원회'를 설립하여
탈북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지구에 세 차례에 걸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도드람조합에서는 수년간 매주 배합사료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외에 인공수정 기술과 방역교육, 동물약품과 기자재 지원 등이 이어졌는데 북한 측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이 종돈을 '월북 돼지'라 불렀고, 그 돼지들이 낳은 새끼들을 우리는 '통일돼지'라 부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치적 상황 변화로 인해 북한 종돈 지원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계기가 되어, 저는 '작은 통일이라도 실천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탈북민과 탈북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져야 정치적 불안에서 벗어나고, 군비경쟁과 같은 사회적 위험도 줄어들며, 산업과 사회 전반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3만 3천 명의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국 지원



통일장학회 첫 모임

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남북 간의 심리적·사회적 틈이 좁혀지고, 통일 이후에도 조화롭고 하나 된 국민으로 어우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2011년부터 개인적인 후원을 시작했고, 2014년부터는 일가재단을 통해 '통일 장학위원회'를 설립하여 탈북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이 장학사업은 단순한 일시적 금전 지원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취업·창업(3업)을 지속해서 돕고 생활 전반을 함께 돌보는 활동입니다. 그동안 지원한 학생들 가운데에는 양계장 실습을 계기로 독립해 개인 양계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학생도 있고, 우리 대학에서 석·박사(중국어학과)를 마치고 강단에 선 학생도 있습니다. 이들의 성장은 작은 통일의 결실이며, 앞으로 다가올 통일 시대에 진정한 역군으로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2023년 큰 자제분이 다비육종 대표로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아들이 화학과를 졸업하고 삼성 반도체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가업승계를 위해 나와서 10년 전부터 다비육종에서 근무하며, 제휴하고 있는 프랑스회사 등 각국에서 양돈 관련 연수를 거치고 실질적인 경험과 지식을 쌓으며 관리·운영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 후 재작년부터 대표로 취임하여 다행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로서 매우 대견하고 든든합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고비를 이겨낸 힘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어려웠던 때가 2002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때였습니다. 내 살 같은 종돈을 전부 매몰 처분하고, 결국은 농장을 타 업체에 넘기고 큰 손실을 보았지요. 정말 사업을 접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견디게 한 것은 '돈을 따르는 것은 직업이고 돈을 넘어서 하는 것은 소명이다'라는 한 마디였습니다. 양돈은 저에게 있어서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듬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자 돼지업계가 반사이익을 보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손해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 저를 견디게 한 것은
> '돈을 따르는 것은 직업이고
> 돈을 넘어서 하는 것은 소명이다'라는
> 한 마디였습니다.
> 양돈은 저에게 있어서 직업이 아니라
> 소명이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을까요?

우리 세대가 대부분 그랬겠지만, 현업에 집중하느라 자식들과 놀아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놀이공원도 자주 다니고 여행도 함께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꽃을 많이 좋아하셨는데 돼지 농장만 많이 지었지, 어머님께 정원 딸린 집에서 꽃과 나무를 마음껏 가꾸며 사시도록 해드리지 못한 아쉬움 역시 큽니다.



손주들과 즐거운 한때



아내와 SOI DAO에서 라운딩

고마운 이들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아내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남편의 기를 살리고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깐깐한 상사의 관리를 견뎌준 부하 직원들(다사모, 퇴직자모임)에게도 감사드리고 일가재단의 좋은 분들, 장학회 후원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격려하여 오늘의 저를 있게 해준 선진의 '故 이인혁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일찍 종교를 가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겨내는 힘을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윤희진 님은 충남 당진에서 출생하여 부인 故 박영숙(농가정65)과의 슬하에 2남(성규, 영규)을 두었으며 4명의 손주가 있다.



어릴 적부터 기부습관을 가르치다

약력

1968년 8월	삼성그룹 입사(주식회사 중앙개발, 기획조사실)
1973년 5월	용인 자연농원 양돈사업부 초대 사업소장
1975~1985년	선진축산 상무이사
1983년	다비육종 창업
한국양돈연구회 회장	
도드람 양돈사업회 회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상임이사	
2005 KISTOCK 축산박람회 추진위원장 역임	
2009 자랑스러운 상록인대상 수상	
일가상 수상	
동탑산업훈장 수훈	

우리가 도전한 요세미티 거벽

2025. 6. 26.~2025. 7. 12. 서울농대 산악회

글 | 고예은(23), 김창곤(24), 정철의(87), 최지요(24)
편집 | 김창곤(24)



요세미티로 고! [등반 참여: 고예은(수의23), 김창곤(산림과학24), 최지요(수의24), 정철의(농생87), 이승환(농생80)]

출사표

'요세미티',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단어가 아닌가. 2024년 가을 원정대 대장 철의 형님이 처음 거론하셨을 때, 한창 암벽등반에 푹 빠져 있던 나에게 그곳은 현실을 제쳐두고서라도 꼭 가고 싶은 장소였다. 우선 간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랐다. 크랙 등반도, 인공등반도, 거벽에도 무지했다. 3월 초, 무식하게 무당골에서 선등한다고 나섰다가 2m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한국산악회 박인천 이사님이 "당분간 크랙 등반은 선등할 생각 말자."라고 말씀하셨다. 여러 면에서 한숨을 푹푹 쉬셨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월, 수요일에는 실내 암장, 목, 금, 토, 일요일에는 인수봉과 선인봉을 쏘다녔다. 4월에는 익스트림 라이더스(ER) 56기를 수료하며 거벽 등반에 필요한 지식을 몸으로 익혔다.

각오의 표시로 머리도
빡빡 깎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는 산악회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출국했다.

이제는 출정이다. 각오의 표시로 머리도 빡빡 깎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는 산악회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출국했다.

우리의 목표는 엘 캐피탄 이스트 버팀벽, 하프 돔 RNWF(1박2일), 엘 캐피탄 노즈(2박3일)이다.



멀리서 본 엘 캐피탄



하프돔 정상의 기쁨



인공등반 구간

하프돔 Regular North West Face 등반기

1일 차: 2,000m에서 스쳐 간 고산병(글: 김창곤)

어젯밤 장비 정리 및 캠프 정리를 못 하고 자서 원래 9시 출발 목표였으나 11시에나 출발했다. 미러레이크까지 가는 길은 일반 트레킹 길이라 매우 편하다. 30분 정도 걸으면 카라비너 마크가 있는 작은 나무 기둥이 나오고, 이때 하프돔 쪽으로 방향을 꺾는다. 첫 번째 너덜지대 및 픽스 자일이 곧 나오고 한동안 주야장천 걸어야 한다. 걷다 보면 개념도에서 내려가는 길의 픽스자일이 보인다. 철의

형님들은 아무래도 고산병이 온 것 같다고 했다.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산악부 탈퇴, 원정 도망 등등 온갖 비관적인 생각이 들었다.

형님은 갑자기 내려가는 길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최석문, 이명희 선생님이 추천한 길이라고 나중에 들었다. 이 길은 딱 한 번만 약 40m 정도 멜빵까지 착용하는 주마링을 하면 되고 개념도상 올라가는 길은 짧고 약한 각도로 4번의 주마링을 하면 됐다. 아직도 어느 쪽이 맞는 선택인지 모르겠다.

이때 난 주마링에 익숙하지 않은 승환, 전수 형님에게 주마링을 알려 드리고 라스트로 올라갔다. 이 뒤로도 RNWF 시작점까지는 한참을 걸어야 한다. 그런데 너무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오래 걷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덥고 우울하고 숨이 찼다. 3번째로 가다가 점점 느려져 꼴찌가 됐다. 겨우 형님들을 다시 만났다. 그늘에 누우니까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국내 종주 등에서 더 힘든 등산도 많이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형님들이 아무래도 고산병이 온 것 같다고 했다. 듣고 보니 예은이가 말했던 고소 증상이랑 비슷했다. 전수 형님이 자일을 들어 주셨고, '조금만 더 힘을 내자!' 해서 중간중간에 쉬면서 마저 걸어갔다. 계속 지쳐 갈 때쯤 지요가 시작점 앞 우물에서 뜬 시원한 물을 들고 나에게로 왔다. 우와! 천사인 줄, 거의 1L를 한 번에 다 마셨다. 도착해서 바로 누웠다. 이때는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산악부 탈퇴, 원정 도망 등등


요세미티 자랑, 회색곰의 환영


암벽등반 중인 고예은

온갖 비관적인 생각이 들었다. 당장 내일부터 하프돔 1박 2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근심이 많았다. 1시간 정도 쉬니 정신이 돌아왔고, 몸을 조금씩 움직이니 적응이 되는 듯했다. 다음 날에는 자일을 고정하는 철의 형님을 뒤따라갔다. 나름 열심히 올라갔는데 철의 형님이 '쉬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들었냐!'고 혼내셨다. 확실히 자의적으로 판단하긴 했다. 다만, 당시에는 심리적 안정이 매우 중요했기에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이날 안 따라갔으면 그다음 날 더 불안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

아래도 안 보이고,
위도 잘 안 보여 그저
묵묵히 한 발 한 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2일 차: 거벽 등반은 외로운 활동이다(정철의)

생각보다 좀 늦게 시작했지만 괜찮다. 하프돔 코스는 트래버스가 많고,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손가락이 겨우 들어가는 핑거 크랙이 계속 이어져 있다. 전반적으로 하프돔 등반이 쉬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리 쉽지는 않았다. 특히 루트 파인딩이 매우 중요하다. 로빈슨 트래버스가 그랬다. 드디어 2017년 대규모 낙석이 발생한 지역에 다다랐다. 볼트 12개를 건너가는 피치에서, 창곤이가 한 번 해 보겠다고 했다. 톱을 넘겨주었다. 창곤이는 기술과 장비를 이용하여 우아하게 피치를 마무리하고는 바로 내게 톱을 돌려주었다. 아랫도리가 시원해지는, 말도 안 되는 침니 구간에 다다랐다. 아래도 안 보이고, 위도 잘 안 보여 그저 묵묵히 한 발 한 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가다 보면 피치가 끝나겠지 하는 생각으로 묵묵히 나아가다 보니 7시 반쯤 빅 샌디 레지(Big Sandy Ledge)에 도착하였다. 창곤이와 석양을 배경으로 한 컷. 오늘 하루 정말 수고가 많았다. 바위에서 첫 밤이다.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비좁지만 기울어진 바위 위에 몸을 눕혔다. 금방 잠이 들었다. 오밤중에 창곤이가 춥다며 내 침낭 안으로 들어왔다. 안아 주었다.

3일 차: 무릎 꿇지 않는다(정철의)

땡스 갓 레지(Thanks God Ledge; TGL)까지 세 피치는 매우 까다롭고 좁은 실 크랙의 연속이다. 너트와 마이크로캠이 소요된다. 그만큼 긴장이 높다. TGL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폭이 좁았다. 벽을 보며 왼쪽으로 발을 옮기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 발을 들 수가 없다. 여기서는 발을 끌고 밀어가며 전진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 더 가니 여유가 생기고 피톤이 나타났다. 정말 가슴 졸이는 순간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침니 구간이 나타났다. 가만히 보니 벽 보며 침니가 가능하다. 주봉 똥구멍 침니, 선인봉 선인 B 침니 구간과 비교해보면 그냥 무난히 할 만하다. 이후 두 번의 팬들럼을 포함하는 볼트길 2피치는 스카이 훅을 사용했다. 한고비는 넘어갔는데, 두 번째는 도저히 안 된



요세미티 등반 참여자들의 보고



등반보고회(2025. 8. 1.) 농대 산악회의 정철의 회장



등반 보고 축하 선배들과 함께

다. 몇 번 시도하다가 직등을 선택했다. 몹시 무서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다행히 발과 손 홀드가 버텨 주었다. 이제 마지막 피치이다. 마지막 피치는 정상을 바라보면서 왼쪽으로 돌아서 올라갔다. 정상이다. 32년 만에 다시 돌아온 하프돔 정상. 괜히 눈물이 난다. 창곤이가 올라왔을 때 오랫동안 안아 주었다. 지요가 전날 스네이크 다이크(Snake Dike) 루트로 올라와 숨겨 놓은 가방을 찾아낸 뒤, 하프돔 후면 사다리 길을 내려와 다시 캠프로 합류하고 캠프에서부터 다시 긴 긴 여정의 하산 길을 재촉하였다.

하산 역시 쉽지 않다. 커리빌리지 쪽으로 나오는데 마치 우리의 등반을 축하나 해주려는 듯 요세미티의 자랑, 회색곰이 나타났다. 곰은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듯 그저 풀을 뜯으며 저녁 식사에 열중하고 있었다. 지요는 예은이 언니에게 보여 주겠다며 가까이 다가가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무모함까지 보였다.

모두의 도움과 걱정,
응원 속에
떠난 원정이었다.
원정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이전과는 달라진 나와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맺음말

우리의 요세미티 원정은 이렇게 끝이 났다. 요세미티 밸리 안에서의 2주는 순식간에 지나갔다. 첫날부터 사고도 있었고, 하프돔에서의 고산병, 거벽에서의 비박, 탈출까지 다사다난했다. 정들었던 캠프 4 야영장을 떠날 때는 마치 이사를 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모두의 도움과 걱정, 응원 속에 떠난 원정이었다. 결과와 상관없이, 원정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이전과는 달라진 나와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교를 떠나 산에 푹 빠졌던 6개월은 살면서 결코 잊기 힘든 추억이 되리라. 서울농대 산악회 형님들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산악계 선배분의 지원 덕분에 산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었다.

제1회 상록 친선 골프 대회



2025년 10월 30일 안성베네스트 GC에서 동창회 주최 제1회 상록친선골프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학과팀, 동아리팀 등 총 26개 팀 204명이 참석하여 경기를 하였으며 '임산7080'팀이 팀 스코어 307점을 획득하여 제1회 대회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되었다.

농생대 동창회 주관의 골프대회는 오랫동안 동문들 사이에서 대회 개최에 대한 갈망이 있었으나, 코로나 사태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박식순 동창회장이 취임함으로써 마침내 오랫동안의 열망이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다. 골프대회가 기획되기 전, 동창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개최 필요성에 대한 문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강력히 개최를 주장하였다. 이에 동창회장은 대회 개최를 결정하고 본인과 서병륜 명예회장이 각각 1,000만 원씩을 후원하였다. 그 결과 9월 3일 동창회 홈페이지에 대회 모집 공고가 게시되었고 응모 기한인 20일이 채 되기도 전인 9월 15일에 예정된 20팀을 초과하여 총 26팀이 모집되어 급박했지만 제1회 대회는 순조롭게 개최될 수 있었다.

학과를 대표하는 팀들과 동아리를 대표하는 팀들로 구성된 각 조는 대회를 앞두고 각 팀 상황에 맞게 서로 팀워크를 이루며 팀 훈련을 진행했다고 한다. 어떤 팀은 1박 2일로 대회장 근처에서 합숙하며 연습을 하였고,또 다른 팀은 대회를 위해 소속 단체별로 소규모 대회를 치르고 선수들을 선발하기도 했다. 동창회 주최 골프대회를 계기로 각 학과와 동아리, 모임 간의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이를 통해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며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련해 준 동창회에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동창회 사무국은 처음으로 하는 대회여서 준비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동문들의 예상 밖의 호응으로 힘을 얻어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다. 실제 경기에서 돌



발 상황도 없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첫 대회치고는 잘 준비되었다는 후한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다음 대회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번 대회는 팀성적이 우선인 관계로, 팀 1위가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내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단과 대항 골프대회에 우리 대학 대표로 참가하는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임산7080'팀이 그 주인공이다. '임산7080'팀은 임산공학과 70~80년대 동문들이 함께한 팀으로 팀 합계 스코어 '307'점으로 2위 팀과 무려 10점 차이를 내며 놀라운 성적으로 팀 1위를 기록했다. 우승팀은 우승 트로피에 팀명과 팀원 이름이 모두 새겨지는 영광을 가지게 된다. '임산7080'팀은 우승의 큰 기쁨을 우리 동창회 '상록문화재단'에 팀명으로 '500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1위에 이은 팀 2위는 '하모니'팀이다. 이 팀은 동창회에서 대회를 공고하자마자 팀보다 앞서 접수를 마친 개인들로 구성된 유일한 팀이다. 평소에는 같이 라운딩을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팀인데 뜻밖의 훌륭한 성적을 거두며 2위의 즐거움을 누렸다. 팀 3위는 농토목과로 원래 참가 동문들의 예상에는 농토목과도 유력한 우승 팀 후보였으나 대회를 임박하게 앞두고 개인사로 우수 팀원이 교체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여 우승에서 멀어지는 아쉬운 결과를 낳았다는 후문도 들렸다. 대회 개인 수상자들은 중복 수상을 불허한다는 대회 규칙에 따라 팀 우승과 준우승 팀원을 제외한 참가자들의 성적을 바탕으로 선정되었으며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포스터와 트로피

제1회 상록친선골프대회 결과

팀	우승	임산7080 (이학래, 고영복, 심규섭, 이동주)	개인	우승	고종현(농교육82)
	준우승	하모니 (나천수, 권혁헌, 정회석, 양철주)		준우승	최향미(농가정83)

▶신페리오 우승: 이관호
▶시니어 MVP: 김종훈
▶레이디 MVP: 이영희
▶장타상: 이동주, 정현아
▶니어상: 전승완
▶다버디상: 박래권, 박대호
▶다파상: 박세호
▶다보기상: 서병륜
▶노력상: 윤석용

제1회 상록친선골프대회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금	서병륜 명예회장 1,000만 원 박식순 동창회장 1,000만 원 농골모(농대골프모임) 100만 원 신희순(동창회 상임부회장) 100만 원	후원물품	농업생명과학대학, 그린바이오기술원 KS그룹, 농협뱅크, (주)오미나라 (주)아정문화재, 카페일오 골프존마켓, HBK컨설팅



팀 우승, 임산7080



팀 준우승, 하모니팀



개인 우승, 고종현(농교82)



개인 준우승, 최향미(농가정83)


서병륜 대회장 시타


박식순 동창회장 시타


강병철 학장 시타


신창근 대회 운영위원장 시타


회장단


농불회


농생물88


장작불


농토목과


동물자원90


농토목83


원예83



접수



오찬



농생물84



식공과



농골모1



조경과플러스



임학과



농기계



아난티중앙



농골모2



시상품



경품, 기념품



농가정



농골모3



농교육과



연묵회



농골모플러스



농학과



대학교수팀



농지도과

‘2026년 제2회 상록 친선 골프 대회’ 알림

2026년 제2회 상록친선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학과, 동기 모임, 동아리 모임 등 팀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접수는 팀 리더가 대표로 하며 참가비 역시 팀 단위로 입금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025년 참가 팀 모집에서 접수 기간 만료 전,
접수 시작 10일 만에 25개 참가팀 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
참가를 고려하는 팀들은 접수 기간 중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6년 10월 15일(목)

▶장소: 안성 베네스트CC

▶참가 팀: 학과별 동창회장 추천 1팀 이상, 선착순 동아리팀 등 총 25개 팀
(학과 팀 우선입니다.)

▶내용: 18홀 라운딩 & 오찬, 석식, 시상식, 기념품

▶참가비용: 인당 30만 원(그린피22만/카트비 포함, 캐디비/그늘집 별도)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접수 후 입금 *신청 링크는 동창회 홈피 참조(8월 3일 오픈)

▶신청기한: 2026년 8월 3일~8월 14일(2주간)

▶입금 계좌: 농협 301-0248-8582-91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문의: 동창회 02-880-4525, 010-8823-8630



2025년 제33회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



이용환 교수

이용환 교수는 1995년 본교 부임 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인 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벼도열병 연구에 매진하여 식물병원균의 침입 기작 구명 및 병원성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식물–미생물 상호작용 분야에서 유전체학 및 생물정보학을 활용한 다양한 독창적인 연구를 지속해 왔다. 최근에는 식물마이크로바이옴 연구로 범위를 확장하여 작물과 미생물 군집 간의 상호작용을 진화유전학적으로 이해하려는 독창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농생명/생물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들에 발표되었으며, 이들 논문들의 총 인용횟수는 3만 회가 넘어 식물병리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생명 분야 연구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박사 34명과 석사 44명을 배출하였다.

또한 농생명공학부장, BK21 농생명공학사업단장, 식물병원장 및 농생대 연구부학장을 역임하였고 중국 저장대학교, 핀란드 헬싱키대학교의 석좌교수를 지냈다. 한국식물병리학회 및 아시아식물병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2023년에는 세계식물병리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러한 학술 활동 및 연구 업적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한국식물병리학회 학술상 및 공로상, 대한민국 학술원상, 미국 식물병리학회 루스 앨런 상(Ruth Allen Award)과 펠로우 상(Fellow Award), 세계벼도열병학회의 평생연구업적상을 수상하였다.

학력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식물미생물학)
- 1983. 2. 서울대학교 농생물학과(학사)
- 1985.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생물학과 식물병리학전공(석사)
- 1991. 8.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 식물병리학과(박사)

경력

2020 – 현재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1995 – 2020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23 – 현재	세계식물병리학회 회장
2017 – 2024	아시아식물병리학회 회장
2016 – 2017	한국식물병리학회 회장
2015 –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2014 – 2016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
2012 – 2016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병원장
2011 – 2015	핀란드 University of Helsinki Finland Distinguished Professor
2009 – 201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연구부학장
2008 – 2011	중국 Zhejiang University K.P. Chair Professor
2005 – 2020	한국연구재단 지정 곰팡이유전자원은행 은행장
2006 – 2008	서울대학교 BK21 농생명공학사업단 단장
2003 – 2020	미국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1993 – 1995	LG화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1991 – 1993	미국 Clemson University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2025년 제25회 학술상



강동현 교수

강동현 교수는 2011년 본교 부임 후 식품생명공학 전공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 왔다. 그동안 식품위생공학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16명의 박사, 30명의 석사를 배출하였다. 또한 국내외 논문 320편, 특허 19편을 발표하여 식품위생공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연구재단 등 100여 개의 연구과제도 수행한 바 있다.

강동현 교수는 교내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2017–2021년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업적으로 2017년 한국공학한림원 100대기술 주역 선정 및 2019년 농림축산식품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강동현 교수는 연구뿐 아니라 학내와 대외 활동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Journal of Applied Microbiology, Letters in Applied Microbiology, Journal of Food Protection 등 다수의 국제 학술지에서 편집활동을 하였고, KAFTA 회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축산물안전관리기준원 등 여러 정부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구 인프라 확충과 학제 간 협력을 강화하였다. 최근에는 한국식품과학회 총무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식품위생공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학력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식품생명공학)
- 1991. 2. 경북대학교 식품공학과(학사)
- 1993. 2.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석사)
- 1997. 5. 캔자스주립대학교 식품과학부(박사)

경력

2011–현재	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전공 부교수, 교수
1999 – 2000	USDA, Clay Center, NE Food safety microbiologist
2000–2011	워싱턴 주립대학교 조교수, 부교수(Tenured), Pullman, WA
2001 – 2007	Editor for Journal of Applied Microbiology
2001 – 2007	Editor for Letters in Applied Microbiology
2003–2009	Editorial Board for Journal of Food Protection
2007 – 2009	Chief Editor for J. Rapid Methods and Auto. in Microbiol
2008 – 2009	President of KAFTA
2008–2011	서울대학교 WCU 식품생명공학전공 사업단 참여교수
2008 – 2015	Editor for Journal Korean Soc. Appl. Biol. Chem.
2008 – 2016	Editor for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2008 – 2016	Editor for Korean Journal for Food Sci. Animal Resources
2009 – 2011	명예연구관 – 농촌진흥청
2012–2014	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전공 전공주임교수
2012 – 201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 전문가 자문위원
2012 – 2017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기술자문위원
2013 – 2017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
2017 – 2021	서울대학교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소장
2022 – 2023	한국식품과학회 총무운영위원

2025년 제22회 교육상



정욱주 교수

정욱주 교수는 2005년 서울대학교에 부임한 이래 조경설계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헌신하며, 조경설계의 학문적 기반 확립과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부임 이전 국내외 유수의 조경설계사무소에서 10여 년간 실무경력으로 이론과 실제가 조화된 균형감 있는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단순한 기능 전달 중심의 직업교육을 넘어, 동시대 조경설계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미래세대가 지녀야 할 공간 가치관과 디자인 사고를 함양하는 교육을 실천해왔다. 학부 교육과정 내 조경설계 스튜디오를 체계적으로 재편하고, '도시조경설계연구실'을 운영하며 42명의 석사 졸업생을 포함한 다수의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조경설계 분야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조경가로서도 여의도 한강공원 국제설계공모, 서서울미술관 국제지명설계공모, 화성시 제부도 근린공원 설계공모, 전방일신방직 부지 내 공원조성 지명설계공모 등 다수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당선 및 수행 실적을 거두었다. 특히 합천군 황매산 군립공원 마스터플랜 및 입구 정원 설계를 통해 2023년 제13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 헤리티지가든' 조경설계로 2020년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Asia Design Prize)를 수상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욱주 교수는 교육과 연구,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통합해온 교육자이자 실천적 조경가로, 개발 중심 시대에 간과되기 쉬운 환경 · 디자인 · 문화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또한 학계와 실무를 아우르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조경분야의 사회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도시경관 · 공원 · 정원 등 일상 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연구와 실천을 이어가며, 조경가 그룹 내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해 조경설계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학력

-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 생태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조경학)
- 1994. 2. 서울대학교 조경학과(학사)
- 1999. 5.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조경학과(석사)

경력

2005 – 현재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00 – 2005	University of Pennsylvania, School of Design, Lecturer
2001 – 2005	Field Operations, Senior Associate
2006 – 2008	행정중심복합도시 설계자문위원
2007 – 2007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지구단위계획수립 자문위원
2008 – 2009	서울특별시 디자인위원회 자문위원
2008 – 2009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사업 MLA
2012 – 2014	인천공항공사 제2,3기 문화예술자문위원
2013 – 현재	환경조경나눔연구원 대학생봉사단장
2013 – 2013	서울식물원 조성사업 조경MP
2015 – 2017	서울대학교 농생대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장
2018 – 2019	새로운 광화문광장 국제설계공모 심사위원
2019 – 2020	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2020 – 2021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2021 – 2022	서울특별시 서울형 공공조경가그룹 위원장
2023 –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023 – 현재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025 – 현재	한국조경가협회 수석부회장

동문에게 드리는 글

“모교 발전을 위해 동문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생대 발전기금 기부자 아트월 앞에서, 강병철(원예86) 농생대 학장

안녕하십니까?

올 7월에 취임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 강병철입니다. 1906년 개교 이래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열고, 생명과학 발전을 이끌어 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왔습니다. 2026년 개교 120주년을 앞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 위기와 식량안보의 심각한 위협, 인구감소, 고령화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협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생명산업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초연구 강화와 AI 기반의 실증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농업생명 분야의 국가예산이 현장 적용 기술개발에 집중되면서, 미래 농업기술 혁신의 원천이 될 기초 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실습 농장, 목장, 학술림 등 대학의 연구 인프라가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지만, 노후화된 시설들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우수 인재가 의약학 계열로 집중되는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농생명 분야의 인재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생대는 12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글로벌 농업생명과학 혁신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기초연구-교육데이터-AI 실증-산학협력’이 선순환되는 새로운 체계를 확립하고자 다음 두 가지 핵심 기금을 조성하려 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구합니다.

동문 한 분 한 분의 출연은 우리 대학의 미래 핵심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생명과학 및 관련 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 기반이 되는 글로벌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굳건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R을 찍으면 바로 기금 출연 가능





[문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기획전략본부

전화: 02-880-4538 이메일: calsnews@snu.ac.kr

작물생명과학전공, 2025년 필드트립 진행



작물생명과학전공이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필드트립을 진행했다. 이번 일정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85명이 참여했으며,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현대서산농장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학습을 진행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ADB와 공동 GHAN 국제 워크숍 개최



(출처: E동아)

모교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함께 '2025 GHAN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GHAN(Global High-tech Agricultural Network)은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을 목표로 정부 · 국제기구 · 농학계 대학 · 연구기관이 협력해 농업 분야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등 아시아 주요 농업대학 총장단과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농업 교육과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대학교 월드푸드테크창발센터, KTR과 국제 표준 개발 위한 업무 협약 체결



9월 5일 식품 · 동물생명공학부 이기원 교수가 센터장이자 협의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월드푸드테크창발센터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안양수목원, 58년 만에 상시 개방





서울대학교가 국유재산이던 안양시 관악수목원의 무상양여를 최종 승인받으면서 11월 5일부터 58년 만에 수목원을 시민에게 상시 개방하게 됐다. 서울대학교는 기획재정부 협의와 교육부 승인을 통해 법적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전시 구역 25ha 중 교육 · 연구 시설을 제외한 20ha를 개방한다.

강병철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은 "관악수목원은 반세기 넘게 교육 · 연구의 장으로 자리해 온 중요한 자산"이라며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시 개방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공공적 역할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와 안양시는 해당 지역 명칭을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으로 확정했으며, 수목원은 1,158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운영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며, 월요일과 신정, 설 · 추석 연휴에는 휴원한다.

김 활성처리제 신규 개발 성공



모교 산학협력단이 2022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9개월간 전남도, 수협 등과 함께 김 활성처리제를 신규 개발했다. 기존 유기산 처리제는 효능이 낮고 가격이 높아 불법 무기산 사용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남도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병해충 방제력과 작업 효율을 높인 친환경 신규 활성처리제를 개발했다.

개발 책임연구원인 식품동물생명공학부 하남출 교수는 "옥살산, 전착제, 이산화염소를 적정 비율로 배합해 기존 제품보다 병해충 방제, 유해물질 부착 방지, 작업 효율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2027년 아시아태평양화학생태학회(APACE) 제주 유치 확정



산림과학부 박일권 교수가 총괄을 맡고 있는 아시아태평양화학생태학회(APACE)가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27년 학회를 제주에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박일권 교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화학생태학 연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비씨티 연구팀, 나노신소재 'NGO' 기반 새로운 면역치료 방향 제시



식품 · 동물생명공학부 유경록 교수팀이 참여한 인비씨티 연구팀이 나노그래핀 옥사이드(NGO)와 대식세포 기반 세포치료를 결합해 새로운 면역치료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xeno-GVHD 마우스 모델을 구축해 NGO의 효과를 확인했으며, 생존율 증가, 체중 감소 억제, 주요 장기 손상 감소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아울러, NGO를 활용한 대식세포 기반 세포치료제 개발에도 성공해 GVHD 완화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면역억제 치료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면역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월드푸드테크 컨퍼런스 개최



(출처: 매일경제)

식품 · 동물생명공학부 이기원 교수가 공동 회장으로 있는 월드푸드테크협의회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년 월드푸드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월드푸드테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서울대학교 월드푸드테크창발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UNIDO 등 국내외 기관과 기업이 후원했다.

본 행사에서는 푸드테크 혁명, 푸드 AI, 스마트팜 등 48개 세션에서 150여 명의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이기원 공동 회장은 "푸드테크는 음식을 해결하는 문제에서 시작해 뷰티 · 메디컬 산업까지 연계된다"며,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 푸드테크 협력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농생대 · 자연대 · 첨단융합학부 가을 연합축제 'FALL INTO'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첨단융합학부가 가을 연합축제를 열었다. 이번 축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으며, 농생대는 각 학부와 칼시안이 참여해 총 9개의 부스를 운영했다.

행사 둘째 날 폐막제에서는 농생대 밴드부를 비롯한 서울대 공연팀들의 무대가 이어졌고, 특별 게스트로 초청된 밴드 '체리필터'가 무대를 꾸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정년 퇴임교수(2025년 8월 31일)

공로에 감사드립니다.



김현중 교수
(환경재료과학, 임산83)



백명기 교수
(동물생명공학, 축산79)



최상호 교수
(식품생명공학, 식공78)

신임교수(2025년 9월 1일)

본교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안병일 교수
(농업·자원경제학, 농경제92)



김명후 부교수
(동물생명공학, 동물자원00)



김연욱 조교수
(지역시스템공학, 작물생명10)



이윤경 조교수
(작물생명과학, 작물생명 석16졸)

농경제사회학부 문정훈 교수, 유튜브 '사피엔스 스튜디오' 출연



9월 5일 농경제사회학부 문정훈 교수가 유튜브 인문학 채널 사피엔스 스튜디오 '로컬 콜링: 제주 재래 흑돼지' 편에 출연했다.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서울대 16명 증가

미국 글로벌 학술정보회사 클래리베이트(Clarivate Plc)가 발표한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에 서울대학교가 지난해 13명보다 3명 증가한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산림과학부 이요한 교수, tvN '벌거벗은 세계사' 출연



산림과학부 이요한 교수가 9월 2일 방송된 tvN 벌거벗은 세계사 219회에 출연해 '인류의 생명줄, 아마존이 왜 파괴됐는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상록문화재단 2학기 장학금 수여식



8월 26일 화요일 75-1동 203호에서 상록문화재단 제2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박식순 이사장은 2024년 신설된 스마트시스템과학과 학생 7명에게 특별장학금을 수여했으며, 2학기 장학금은 총 48명의 학생에게 약 9천4백만 원이 지급됐다.

농생대 동창회, 학생회에 600만 원 지원



8월 26일 화요일 75-1동 207호 동창회 사무실에서 박식순 동창회장이 김누리 농생대 학생회장과 조윤서 부학생회장에게 학생회 지원금 6백만 원을 전달했다.

2025년 후기 신입회원 등재

2025년 후기졸업생으로 학사 87명, 석사 103명, 박사 26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동창회 신입회원으로 등재되었다.

동창회보 제109호 발행



동창회보 제109호가 2025년 9월 1일 자로 발행돼 동문들에게 발송됐다.

2026년 새해인사회 준비를 위한 76학번 1차 회의



10월 1일 수요일 75-1동 명예의 전당에서 2026년 새해인사회 준비를 위한 76학번 1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76학번 전체 대표 선정과 기금 마련 기준,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제1회 상록 친선 골프대회



10월 30일 목요일 경기 안성 베네스트 GC에서 제1회 상록 친선 골프대회가 개최됐다. 농생대 동창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26조, 103명이 참가했으며, 팀 우승을 포함해 총 21명이 수상했다. 대회는 박식순 동창회장의 후원과 서병륜 전 동창회장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제8회 상록문학상 시상식



11월 10일 월요일 200동 3층 대회의실에서 제8회 상록문학상 시상식이 열렸다. 시와 수필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가작 3명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자문위원 간담회 및 기부금 전달식



11월 11일 화요일 호암교수회관 오크룸에서 자문위원 간담회 및 기부금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임명미(농가정59) 동문이 상록문화재단에 1억 원을 기부했다.

2026년 새해인사회 준비를 위한 76학번 2차 회의

11월 26일 수요일 명예의 전당에서 2026년 새해인사회 준비를 위한 76학번 2차 회의가 진행됐다.



동문 동정

이승돈(농생물86) 동문, 제33대 농촌진흥청장 임명



8월 13일 이승돈(농생물86) 동문이 제33대 농촌진흥청장으로 임명됐다.
이 청장은 1995년 농진청 농업연구사로 입사해 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장, 농진청 연구정책과장 등을 거쳐 2024년부터 국립농업과학원장을 역임했다.

김인호(조경82) 동문, 제36대 산림청장 임명



8월 13일 김인호(조경82) 동문이 제36대 산림청장으로 임명됐다. 김 청장은 1992년부터 30여 년간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 교수로 재직하며 '학교 숲 운동'을 주도했고, 사단법인 생명의 숲 이사와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 역임했다.

동문 경조사(2025. 8. 1.~2025. 11. 30.)

애사

[본인상]
권오완(농공56) 본인상 11월 4일 발인
김상기(농경제58) 본인상 10월 21일 발인
안종성(농교육74) 본인상 9월 23일 발인
양용구(임산공74) 본인상 9월 6일 발인
우창명(농화학66) 본인상 10월 27일 발인
이용국(농공60) 본인상 10월 15일 발인
이택규(임학63) 본인상 8월 30일 발인
이호상(농기계73) 본인상 11월 19일 발인
진영호(농경제66) 본인상 9월 29일 발인
한상룡(농공58) 본인상 10월 16일 발인
황주성(농토목04) 본인상 9월 27일 발인

[가족상]
고기성(원예87) 모친상 11월 13일 발인
고석진(농토목91) 모친상 11월 19일 발인
권혜진(원예89) 시부상 10월 7일 발인
김명찬(농교육87) 모친상 8월 6일 발인
김상병(농생물84) 부친상 8월 16일 발인
김선호(식공93) 모친상 10월 2일 발인
김성희(농토목89) 모친상 11월 28일 발인
김영규(식공72) 빙모상 10월 17일 발인
김영석(식공86) 부친상 8월 12일 발인
김원곤(식공82) 부친상 8월 22일 발인
김익규(농기계95) 부친상 11월 20일 발인
김재갑(농학79) 모친상 10월 27일 발인
김종원(임학57) 배우자상 8월 27일 발인
김주석(식공75) 빙모상 10월 4일 발인
김진혁(식공81) 모친상 9월 22일 발인
김현문(원예86) 빙모상 11월 5일 발인
김현용(농기계92) 빙부상 11월 26일 발인
문진국(농토목92) 부친상 10월 21일 발인
민홍진(임학88) 빙모상 11월 5일 발인
박종필(축산90) 장인상 10월 25일 발인
박종훈(식공88) 배우자상 11월 2일 발인
배로나(원예84) 시부상 10월 24일 발인
변종억(농토목81) 빙부상 9월 25일 발인
손경현(식공81) 모친상 9월 26일 발인
신유성(농기계91) 빙모상 9월 26일 발인
신희재(농기계89) 빙부상 9월 10일 발인
안성광(원예 석14졸) 모친상 8월 14일 발인
오일수(농토목87) 빙부상 11월 26일 발인
유재각(식공07) 부친상 9월 18일 발인
이건호(임학93) 모친상 9월 16일 발인
이기욱(농기계99) 모친상 9월 16일 발인
이상연(농토목10) 빙부상 8월 24일 발인
이상준(식공86) 모친상 10월 2일 발인
이승일(농토목85) 빙부상 9월 3일 발인
이영기(식공91) 모친상 8월 23일 발인
이인(농토목07) 부친상 11월 5일 발인
이종훈(농화학86) 부친상 10월 30일 발인
이지민(농토목98) 부친상 9월 9일 발인
이창진(농토목89) 부친상 8월 26일 발인
이창희(농토목78) 빙부상 10월 24일 발인
전승훈(임학82) 부친상 9월 19일 발인
전정일(임학88) 빙모상 11월 28일 발인
정용균(농학92) 모친상 8월 30일 발인
정재연(농기계96) 모친상 11월 16일 발인
조광수(원예 박06졸) 빙모상 9월 22일 발인
조현대(농기계83) 빙모상 8월 28일 발인
최병권(농토목84) 빙모상 8월 6일 발인
홍지선(식공98) 부친상 8월 10일 발인

경사

강규석(임학84) 자녀 결혼 10월 12일
김기태(농토목75) 장녀 결혼 11월 29일
김대훈(농공86) 딸 결혼 10월 18일
김미혜(농가정78) 차녀 결혼 9월 6일
김영균(임산85) 장녀 결혼 8월 9일
김정훈(식공06) 동문 결혼 10월 25일
김창진(식공74) 딸 결혼 10월 3일
김태영(농토목83) 장녀 결혼 11월 23일
박석기(농토목79) 장남 결혼 11월 29일
박영욱(농토목83) 장녀 결혼 8월 23일
박정웅(식공87) 딸 결혼 9월 20일
배병선(농교육77) 아들 결혼 10월 25일
백신원(농토목82) 장남 결혼 11월 16일
서민환(임학81), 이유미(임학81) 자녀 결혼 11월 1일
성근열(농토목84) 장남 결혼 10월 25일
성찬용(식공86) 딸 결혼 8월 30일
유재문(임산공77) 딸 결혼 11월 30일
윤종원(식공81) 아들 결혼 9월 20일
윤지상(임학16) 동문 결혼 9월 27일
이승일(농토목85) 장남 결혼 10월 11일
이아영(바시공13) 동문 결혼 12월 7일
이탁규(농토목14) 동문 결혼 11월 8일
임영오(농교육78) 아들 결혼 11월 22일
조성형(식공82) 아들 결혼 11월 8일
최병권(농토목84) 차녀 결혼 9월 21일

▣ 신간 소개

김훈동(농학63) 『아람깨』

김훈동(농학63) 동문이 등단 60주년을 맞아 시집 『아람깨』를 발간했다.
'아람깨'는 충분히 익어 저절로 떨어지는 깨를 뜻하는 말로, 산수를 넘긴 김 시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써 내려간 작품들로 구성됐다. 김 시인은 올해 경기도문학상 대상을 수상하며 문학적 성취를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농공동창회 농공의 날



9월 27일 농공동창회는 농생대 대강당에서 '2025년 농공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05학번이 주관하고, 85 · 95학번 특별 찬조로 진행됐으며 동문·가족·재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제61회 정기총회에서는 김성민(농기계81) 전임 동창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재학생 80여 명에게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총회에서는 김일웅(농기계83) 동문이 신임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산업인력개발학과 동창회 홈커밍데이



10월 25일 산업인력개발학과 동창회는 75동 대형강의실에서 '2025년 추계 홈커밍데이'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98학번이 주관했으며, 김지용(농교육83) 동창회장, 이윤조(농교육94) 원우회장, 정진철(농교육91) 학과장을 포함해 약 70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끝났다.

상록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11월 7일 오후 7시 30분, 삼익아트홀에서 농생대 동문합창단인 상록합창단이 제4회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농생대 동문 상록합창단원 모집

♣연습: 매주 월요일 오후 4:00~5:00
♣삼익아트홀3층
(지하철7호선 학동역 6번 출구)
문의: 이*원(총무)/ 010-5272-7414

임학동문회 가을 소풍



11월 8일 임학동문회는 경기도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에서 '2025년 가족 동반 가을 소풍'을 진행했다. 수목원 탐방은 이경준(임학63) 명예교수의 해설로 진행됐으며, 조재구(임학83) 동창회장이 찬조한 막걸리와 동문회가 준비한 손수건이 기념품으로 제공되었다.

농학과 동창회 정기 총회



11월 29일 농학과 동창회는 농생대 1043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94학번이 주관하고, 99학번이 찬조 기수로 참여했다. 총회에서는 박석근(농학81) 회장의 연임이 결정돼 2026년에도 회장직을 이어가게 됐다.

원예학과 총동창회



11월 8일 수원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실험농장에서 '2025년 원예학과 총동창회' 행사가 개최됐다.
올해 준공된 신축 본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병일(농학57) 명예교수를 비롯한 원로 동문, 강병철(원예86) 학장과 교수진, 그리고 23학번 재학생과 동문 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해 친목을 다졌다.

동창회와 상록문화재단에 후원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 8. 1.~2025. 11. 30.)

동창회 농협 301-0036-4788-41 (예금주: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상록문화재단 농협 301-0068-1319-91 (예금주: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임명미(농가정59) 동문 "1억 원" 기부



중앙에 임명미 동문, 좌측 박식순 동창회장,
우측 강병철 학장

2025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호암교수회관에서 임명미(농가정59) 동문의 기부금 약정식이 있었다.
이 날 임명미 동문은 "1억 원"을 동창회 산하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에 기부하였다. 동문은 동덕여대 교수로 정년퇴임한 분으로 우리나라 고대 복식사를 연구하였고 박물관, 방송국, 복식 관련 전시회 등에서 고대 복식 전문 자문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였으며 현재도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다. 동문은 자신의 기부금이 모교의 농업생명과학 분야의 우수한 여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과 유학 경비로 사용되어,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가 탄생하기를 소망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모교의 저개발 국가 출신 여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데에도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1억 원	1,000만 원		620만 원	500만 원
				
임명미(농가정59) 前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박식순(농교육77) 케이에스 그룹 회장 동창회장	서병륜(농공69) 로지스올 그룹 회장 동창회 명예회장	이순형(농기계70) ㈜파워킹 대표	상록 친선 골프대회 임산7080팀(이학래, 고영복, 심규섭, 이동주)

5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안효진(원예84) ㈜해농상사 대표이사	신창근(농생물75) 허마니코리아(주) 대표이사	농골모 (회장 신창근)	신희순(잠사69) 제이와이 인터내셔날 대표	조계현(농화학76) eyesaver 원장

동창회는 회원 여러분의 정성 어린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동창회비는 동문 간의 친목 도모와 모교 발전을 위한 행사, 재학생 장학금 지급, 『동창회보』 발간 등에 사용됩니다.
회비를 납부하셨으나 명단에 누락된 분은 동창회(전화: 02-880-4525 또는 문자: 010-8823-8630)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회비 납입 》 안내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동창회 임원을 비롯한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회비 입금 시 '홍길동농공63' 식으로 본인 이름을 밝혀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01-0036-4788-41 (예금주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임원					일반회원	
회장	상임부회장, 감사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연회비	종신회비
3,000,000원/년	300,000원/년	200,000원/년	150,000원/년	100,000원/년	30,000원/년	300,000원

회비 · 찬조금 납부자 명단(2025. 1. 1.~2025. 11. 30.)

종신회비

강석기(임산71)
강태우(축산87)
구자일(임산93)
김경수(농화학89)
김대종(조경86)
김수호(식공74)
김영균(임산85)
김영호(식공79)
김재철(식공74)
김주학(농화학76)
류수연(식공93)
박지연(농교육 박24졸)
서은희(농가정90)
송현규(농화학87)
양헌모(농화학77)
오성진(농화학90)
이은희(원예74)
이자윤(환경재료16)
이종원(축산86)
이태서(농기계79)
정재환(농생물95)
최시홍(농공71)
허재민(조경15)

상임부회장회비

고동희(임학66)
구석진(농학79)
권용대(농경제73)
김두원(응생화01)
김상석(농생물68)
김선화(농가정79)
김종덕(농교육85)
김태정(농교육91)
문동준(식공70)
박숙자(농가정62)
박옥임(농가정70)
박종문(임산76)
박종열(임학 박98졸)
변상지(농생물74)
신창근(농생물75)
신희순(잠사69)
유향하(농가정68)
윤석용(농학74)
이남호(임산78)
이덕록(농교육79)
이범호(축산70)
이석하(농학76)
이순형(농기계70)
이전제(임산70)
이종식(농공72)
이창구(농생물79)
임영오(농교육78)
장성수(잠사87)
지원철(축산73)
최윤재(축산73)
팽기석(농기계82)

부회장회비

강미령(농가정75)
강춘원(임산공83)
고광돈(농토목88)
권명구(농교육68)
김병운(원예69)
김석동(농학72)
김영관(농화학80)
김영배(농공78)
김왕기(농경제82)
김유인(농생물63)
김재원(임학74)
김정수(농기계82)
김종국(농화학63)
김종대(임학72)
김종훈(농교육70)
김주양(농학86)
노경수(농토목81)
박용제(임학67)
박원규(농공60)
박주원(농교육72)
사공문(농기계72)
심상우(축산57)
양영석(농교육76)
오병오(농교육82)
유위종(농경제72)
이군자(농가정63)
이길순(농가정72)
이동선(식공73)
이병식(농교육89)
이선하(농교육65)
이승돈(농생물86)
이승인(농화학84)
이윤호(잠사68)
이정호(농화학71)
이종린(농화학71)
이해완(농생물72)
임명미(농가정59)
임평자(농가정61)
장대석(축산58)
전재헌(농기계76)
정선자(농가정62)
제상우(조경85)
채제천(농학64)
한원우(농생물72)
허길행(농경제65)
홍순일(농화학63)

상임이사회비

강영애(농가정82)
김대훈(농기계86)
김동순(농생물83)
김성환(식공81)
김진모(농교육81)
박미선(산림자원97)
박영준(농기계95)
송인홍(농토목92)
신경수(농토목84)
오정권(임산97)
우성식(농학82)
윤종철(농생물83)
이혜숙(식공85)
장영배(농생물84)
정경근(농학89)
정현아(농가정82)
최원(농공95)

이사회비

강대구(농교육79)
김기철(농경제91)
김대훈(농공86)
김민수(농교육91)
김석환(식공81)
김승로(농경제 석07졸)
김용하(임학79)
김이기(농교육80)
김정인(축산65)
김종대(임학72)
김진석(농교육69)
김창중(농생물77)
김한주(농공87)
김현성(농공71)
류제민(식공04)
박문한(임학 석84졸)
박연형(임산82)
박원규(축산89)
박정숙(농가정64)
서광섭(농토목79)
서문원(농학74)
서주형(동물자원01)
성주한(임학78)
손동화(식공73)
송병진(농가정75)
송지윤(농가정74)
신민승(농경제08)
신준섭(농화학85)
안지영(임학06)
안홍모(환경재료 석06졸)
오창식(농생물91)
유원형(농경제70)
유형균(동물자원02)
윤성빈(천연섬유04)
윤영준(조경99)
윤종철(농생물83)
이건홍(식공77)
이규석(조경73)
이우신(임학75)
이원재(조경80)
이은정(농가정81)
이은희(농가정82)
이한강(임학69)
이효원(축산78)
임수인(농기계99)
임형백(농교육89)
장성민(산림자원93)
장성용(축산79)
정진호(농화학91)
정회석(동물자원96)
진하영(축산89)
최광환(동물생명06)
최병하(축산81)
최승조(농기계72)
최창규(농화학91)
최현정(농학93)
한장호(농학75)

연회비

강용신(농경제54)
고석우(지시공14)
고예주(식물생산20)
곽현(축산88)
구병국(농교육88)
구외석(원예84)
권기일(임학80)
길재민(농화학75)
김경면(동물생명22)
김관우(식공83)
김광호(농학61)
김규식(농교육72)
김기철(농경제91)
김남영(농지도80)
김남우(농경제83)
김내준(농화학46)
김동환(식물생산03)
김만식(임학62)
김문담(축산57)
김민수(농경제91)
김법균(동물자원93)
김병수(농화학95)
김병윤(임학55)
김삼중(농화학90)
김상균(임학75)
김상옥(농교육68)
김서연(응생화19)

김성훈(임산77)
김승로(농경제 석07졸)
김승언(조경16)
김영기(농공55)
김영수(임학83)
김영은(임학76)
김욱생(임학62)
김운용(잠사71)
김윤희(농가정83)
김은수(농교육96)
김재형(응생화12)
김재홍(축산57)
김정곤(농학72)
김종근(축산90)
김종원(임학57)
김주양(농학86)
김주영(농경제19)
김지원(농경제21)
김진수(농공66)
김진원(식공18)
김태봉(축산81)
김혁년(농토목78)
김휘천(농학63)
남기윤(식공68)
남면우(농생물86)
노원식(농경제71)
노인열(농교육82)
류병훈(농학71)
마종선(축산82)
문채원(작물생명18)
민형기(농공67)
박경희(농가정69)
박금주(농기계71)
박동규(임학56)
박동호(식공74)
박명영(임산89)
박상준(조경89)
박상현(농화학01)
박성현(원예68)
박성현(환경재료17)
박용(농학61)
박윤근(농공55)
박재복(농기계70)
박종호(농학94)
박홍락(임학56)
박효근(축산75)
박흥규(농교육79)
박희구(농학52)
배성진(농기계88)
변재균(농학60)
서광렬(임학72)
서영기(원예70)
서영준(농토목93)
서완수(농경제58)
서재린(축산69)
서정근(농학59)
석동권(농교육77)
손영선(농기계81)
신성휴(농학91)
신용석(농화학61)
신주연(바시공12)
신창민(응생14)
안길수(농생물90)
안선민(식공85)
안수구(임산73)
안윤식(축산70)
안정준(농생물85)
안홍모(환경재료 석06졸)
안희성(농교육73)
양범산(농학55)
양안식(조경73)
양영규(농공65)
여규동(농학66)
염익환(농기계78)
오동신(농교육65)
오성환(농생물88)
오세정(농교육79)
오수영(농화학59)
오영민(농교육97)
오유진(환경재료20)
오학영(농학56)
우성봉(농공79)
우정식(임학53)
우혜림(농가정66)
원상호(농학90)
유문일(농생물66)
유병두(농생물73)
유승근(농교육82)
유영숙(농가정66)
유형재(바시공19)
윤인수(원예82)
윤준혁(식물생산14)
이갑식(임산71)
이건일(농공60)
이경열(농교육82)
이계형(농공72)
이귀락(잠사69)
이기동(축산54)
이백경(농학87)
이병환(농화학69)
이석(농토목75)
이석순(농학62)
이석형(원예85)
이성규(임학71)
이성규(축산74)
이순실(축산71)
이승돈(농생물86)
이승현(잠사81)
이양섭(농기계72)
이영화(농공74)
이완상(농경제54)
이우룡(농경제98)
이원희(조경73)
이윤환(농화학60)
이응태(바시공 석09졸)
이장훈(농학84)
이정원(농공70)
이정자(임학85)
이정환(농학65)
이정환(푸드테크 석23졸)
이준원(농가정74)
이지형(농경제64)
이찬복(농생물69)
이창희(농토목78)
이철순(원예71)
이철영(축산74)
이태희(잠사69)
이호택(농교육78)
이효승(농경제58)
임상섭(조경90)
임용섭(농기계87)
임종문(농기계78)
임종호(축산74)
임지택(농토목84)
장기일(응생화17)
장성종(축산58)
전건표(응생화17)
전진표(임학 석88졸)
정강희(농생물81)
정관모(축산54)
정기택(임학66)
정대화(농화학49)
정소용(동물자원 석00졸)
정여진(산림17)
정원호(농기계90)
정인모(잠사70)
정재승(농화학92)
정혜성(식물미생물 석14졸)
조광동(농학53)
조규전(농교육79)
조규탁(농학86)
조남길(농생물65)
조동표(임학80)
조만영(식공22)
조민식(임학67)
조성수(농경제65)
조성환(농화학67)
조수경(농생물72)
조영호(임학84)
조은영(푸드테크 석23졸)
조태호(농경제54)
주석훈(잠사79)
진종석(농학86)
진혜영(생태조경99)
차경훈(농생명 박23졸)
차순길(농공59)
채대석(잠사61)
채영석(축산52)
천창필(농경제74)
최기화(농경제73)
최병석(식공71)
최상인(산업인력08)
최성식(조경14)
최송웅(임학60)
최수용(농생물98)
최영환(식공86)
최종민(농생물93)
최준영(조경91)
최충효(식공02)
홍영선(원예83)
황용진(농공56)

동창회 찬조금

(2025.1.1.~2025.11.30.)

김종률(농교육72)	100,000
농골모	1,000,000
박식순(농교육77)	10,000,000
서병륜(농공69)	10,000,000
안수구(임산73)	70,000
이남호(임산78)	50,000
이돈구(임학65)	100,000
이원제(임학64)	200,000
이윤환(농화학60)	50,000
이정원(농공70)	20,000
최병하(축산81)	100,000
한휘언(축산62)	100,000

상록문화재단 기부자

(2025.1.1.~2025.11.30.)

75학번 장학금	5,000,000
90학번 장학금	5,000,000
강영애(농가정82)	3,000,000
고상운(임산82)	3,000,000
故이광우(농화학56)	12,000,000
광교동문회 장학금	3,000,000
김병화(농학55)	450,000
김상석(농생물68)	10,000,000
김홍진(농생물65)	5,000,000
농화학동문회	6,000,000
류관희(농공63)	6,000,000
민병채	2,000,000
박숙자(농가정62)	6,000,000
박식순(농교육77)	60,000,000
변상지(농생물74)	3,000,000
서병륜(농공69)	50,000,000
신창근(농생물75)	2,000,000
신희순(잠사69)	1,100,000
안수구(임산73)	100,000
안효진(원예84)	5,000,000
윤석용(농학74)	5,000,000
이범권(축산75)	5,000,000
이범호(축산70)	100,000
이병묵(농생물64)	6,000,000
이순형(농기계70)	11,200,000
이원제(임학64)	500,000
임명미(농가정59)	100,000,000
임산7080팀	5,000,000
임수인(농기계99)	2,000,000
임영오(농교육78)	6,000,000
임종덕(농생물99)	220,000
전창후(원예83)	110,000
정진호(농화학91)	300,000
조계현(농화학76)	1,000,000
주원준(농생물63)	5,000,000
최윤재(축산73)	5,000,000
최치민(식공90)	330,000

2025년 상록의 날 찬조금

(괄호 안은 동기 대표)

농가정(김경란)	2,300,000
농경제(김태완)	3,150,000
농교육(김현수)	2,300,000
농기계(육응수)	3,200,000
농생물(김순옥)	4,300,000
농지도(황규태)	1,450,000
농토목(윤상현)	2,500,000
농학(김태헌)	2,850,000
농화학(조영일)	3,800,000
식품공학(박명수)	3,800,000
원예(오욱)	2,500,000
임산공학(신종찬)	3,100,000
임학(임상표,김종운)	4,000,000
조경학(여기영)	2,700,000
천연섬유(이영근)	3,000,000
축산(축산90동기회)	3,000,000

상록재단 동창회 지원

동창회보 107호 지원	6,000,000
동창회보 108호 지원	6,000,000
동창회보 109호 지원	6,000,000
제8회 상록문학상 지원	5,000,000

2026년 새해인사회 찬조금

(2025.1.1.~2025.11.30.)

농가정76	1,030,000
농기계76	1,900,000
농생물76	1,500,000
농학76	2,000,000
농화학76	2,000,000
원예76	700,000
임산가공76	1,200,000
잠사76	560,000
조경76	1,200,000
축산76	1,400,000

동창회보 인쇄 협찬 기업

107호 : 로지스올, ㈜선진
108호 : 로지스올, ㈜선진
109호 : ㈜선진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기부금 출연 약정서

성명		학과		입학 연도	
직장	직장명:		직위:		
	주소:				
	e-mail:		직장 전화:		
자택	주소:				
	휴대폰:		집 전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약정 금액	일금 원 ☐ 일시납 년 월 일 (분할 매월 원) ☐ 분할납 년 월 ~ 년 월				
지원 분야	☐ 상록문화재단 위임		☐ 농학 연구지원금, 장학금		
	☐ 기부 활동 지원금		☐ 기타		
	☐ 메모				

기부 납부 계좌(예금주: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 무통장입금 농협 301-0068-1319-91

약정서 QR 코드

QR을 휴대폰 카메라로 보면 바로 약정서 링크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기부금 출연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문의하실 곳: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Tel: (02)880-4525, 882-8630 | Fax: (02)873-8632 | E-mail: snunong@snu.ac.kr | Homepage: http://EvergreenSF.snu.ac.kr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75-1동 207호